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 1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 1





보물 제273호 곡성 태인사 적인선사 탑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 탑



보물 제275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 탑비



보물 제1322호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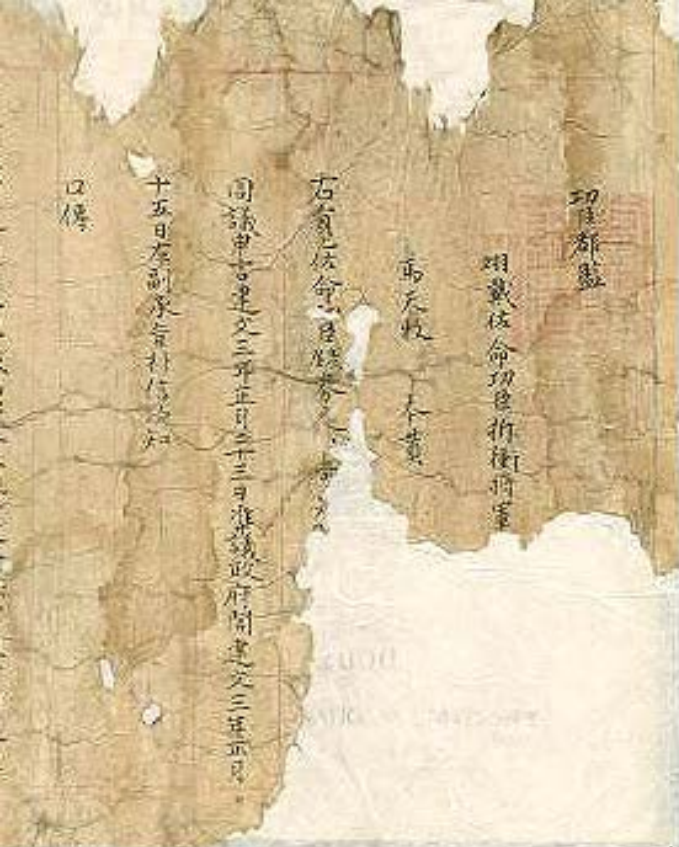
보물 제956호 곡성 태안사 청동 대바라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괘불탱



보물 제1349호 곡성 태안사 동종



보물 제1469호 마천보집영문신본권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목성의를실나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불화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창도(낙죽창도)



국가민속문화재 제155호 곡성 제호정 고택



무형문화재 제35호 곡성 죽동 농악

곡성군의 전라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51호 곡성 흥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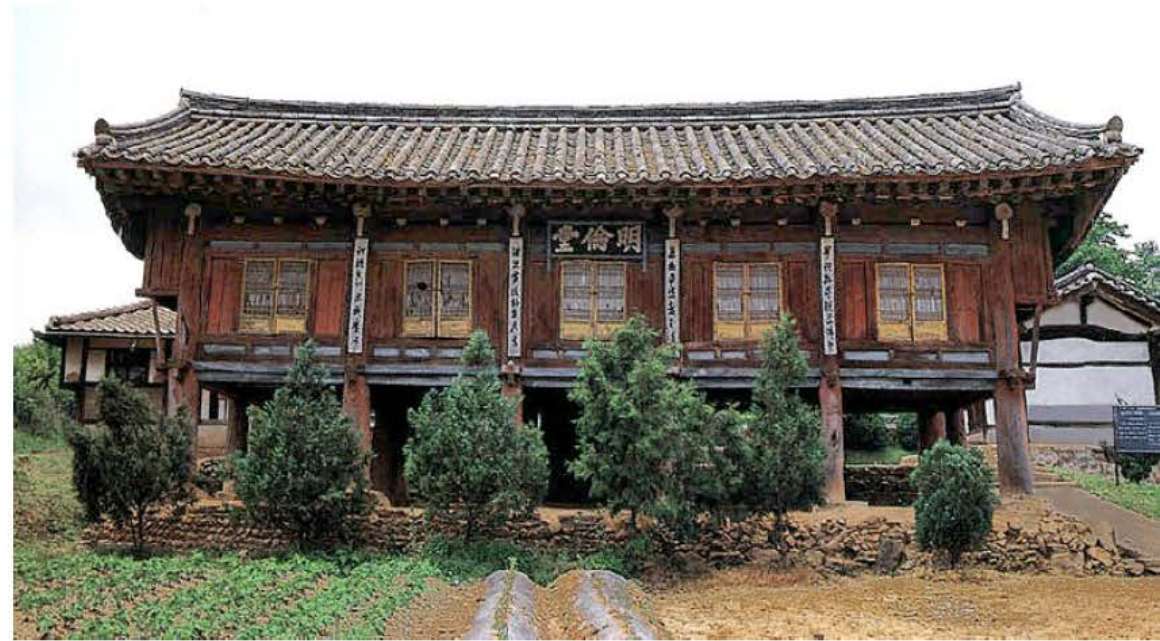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제82호 태안사능파각



유형문화재 제83호 태안사 일주문



유형문화재 제160호 곡성 함허정



유형문화재 제109호 옥과향교



유형문화재 제210호 곡성 도동묘 회헌실기목판



유형문화재 제271호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 아미타삼존불 좌상



유형문화재 제320호 곡성 서산사 동종



유형문화재 제272호 곡성 당동리 석조 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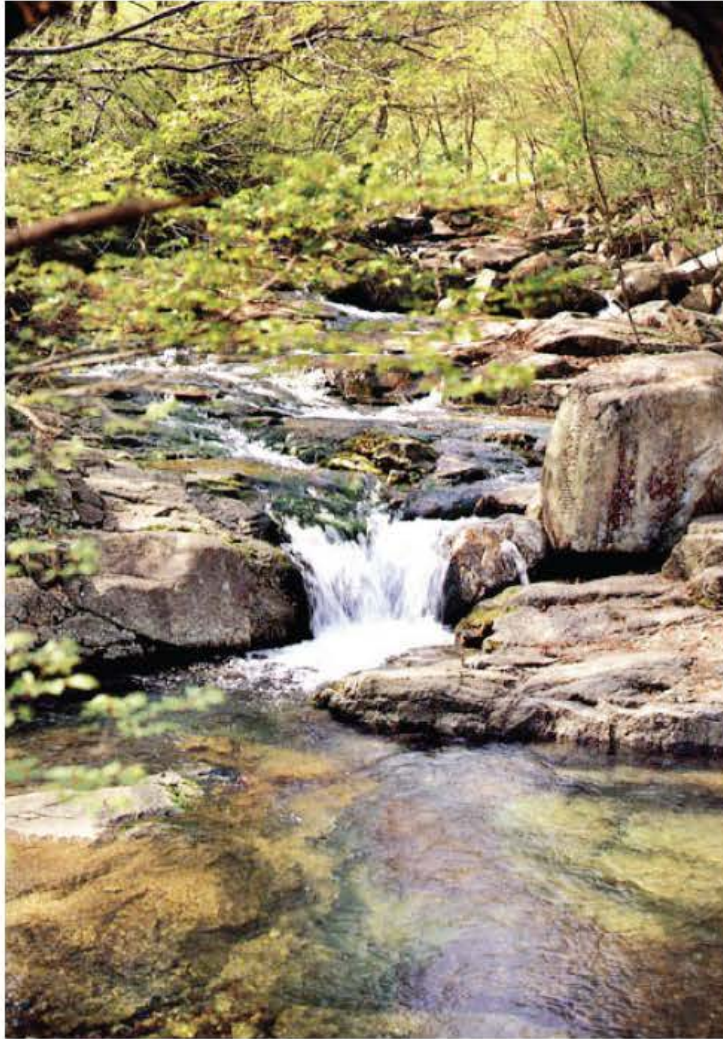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제321호 곡성 연운당 고문서



유형문화재 제329호 곡성 수도암 목조 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신송검 장군 묘



지방기념물 제101호 곡성 도림사 계곡



민속문화재 제2호 옥과 성황당 목조 신상

곡성군의 전라남도 지정 유형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제22호 도림사



문화재자료 제23호 태만사



문화재자료 제24호 관음사



문화재자료 제25호 유월파장군 정열각



문화재자료 제27호 곡성형교



문화재자료 제28호 석곡리 석불입상



문화재자료 제29호 도동묘



문화재자료 제129호 수성당



문화재자료 제120호 덕산사



문화재자료 제167호 영류제



문화재자료 제170호 태안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44호 곡성도동묘안향영정



문화재자료 제281호 곡성 오강사 최익현 초상

곡성의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제25호 곡성 전화장사지 석불 4좌상



등록문화재 제122호 구 곡성역사



등록문화재 제228호 곡성 단군전



등록문화재 제222호 곡성 구삼기면사무소

개인사 같은 사소한 구전 이야기도 귀중한 유산

고광운(곡성문화원장)



등록문화재 제700호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우리 고장에는 유별나게 전설도 많고 구전하는 이야기도 많다. 아마도 지리산과 섬진강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지리산 환란의 역사, 그리고 6·25전쟁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직도 마을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곡성문화원에서는 위와 같은 구전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곡성군 11개 읍·면에 살고 계시는 100여 분의 어르신

들을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찾아뵙고 그분들께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곡성의 전설과 구전 이야기들을 채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약 200여 편의 숨어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을 발굴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조사된 국민대 구비문화 현지답사
보고서에서 몇 편을 발췌 함께 정리하여 금년에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로 발간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구술하여 채록한 이야기들 중에는 부모님들의 눈물
겨운 삶의 이야기와 함께 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은 보
석 같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전설과 설화도 많았다.

이 같은 우리 고장 특유의 구전 이야기를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큰 보람과 의미를 찾
았던 것도 위와 같은 연유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구술사 연구조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보자인 어르신들의 구술과정과 조사자의 채

록과정에서 변형 가공되어 일부 사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
혀둔다. 우리 고장 무형의 문화유산인 어르신들 구전 이야기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구름 가네

명당 _ 51
사우 _ 52
오곡국민학교 _ 54
오지리 이야기 _ 55
평바위 _ 57
당산나무 전설 _ 58
봉사 시어머니 _ 59
친구 _ 62
할머니의 삶 _ 63
목화 _ 69
석곡 해방비 _ 71
노시랑골 _ 73
소 잡는 가구 _ 74
동산리 모래 _ 75
등등바우와 딸섬 _ 79
개미랑 호랑이 _ 81
평상 이름 _ 82
삼기 도대문 이야기 _ 83
자치샘 이야기 _ 85
마전리 귀신 _ 88

문당 이야기 _ 90
보성강과 압록강 은어 _ 92
압록 사람 _ 94
태안사 경찰 _ 97
함록과 압록 _ 99
솔무랭이 _ 104
괴내 이야기 _ 106
신월리 _ 110
수수께끼 _ 113
신기리와 청계동 _ 114
아들바위 _ 117
셋고을 _ 118
죽동 이야기 _ 119
섬진강 정자 _ 123
곡성 오일장 도깨비 _ 125
3·1운동 _ 127
압록과 강감찬 장군 _ 130
곡성, 정감선굴, 옥과 이야기 _ 132
단군전 _ 136
도깨비 살 _ 140
동약산 신선바위 _ 142
말 무덤 _ 144

북호폭포 _ 145
여우내와 황새뜰 _ 146
원효동 _ 148
합허정, 군지촌정사 _ 150
향교, 태안사, 신승점 장군 _ 151
마천목 할아버지 _ 159
원님의 문안인사 _ 160
점동네 _ 161
웅기 _ 164

산 따라 물 따라

늑대와 싸운 이야기 _ 169
퐁퐁거리 공동묘지 도깨비 _ 170
운봉 귀신 이야기 _ 172
모기 _ 174
원등 도대문 _ 175
도깨비 살과 도깨비 죽 _ 176
말골 불빛 이야기 _ 178
박정상 이야기 _ 180
변다물 마을의 유래 _ 199

뒷산 호랑이 이야기 _ 201
사는 이야기 _ 203
행귀다리 귀신 _ 205
종고산 _ 207
호운석 바위 _ 208
도구대(塙白堆) 처사(處士) _ 211
첩 사주를 가진 애잔한 작은할머니 _ 215
5대장손 출생에 얽힌 예지력 _ 217
뇌죽산 설화 _ 220
뇌죽산과 등등바위 통설 _ 223
조상님의 선몽 _ 226
조씨와 조탑 _ 229
하늘재 구름다리 _ 230
경복궁 해태에 대한 설화 _ 231
사립문 _ 233
돼지머리 _ 234
문턱귀신 _ 235
앞 냇가 도깨비 _ 236
제삿밥 _ 237
할머니 어릴 적 _ 238

해동네 달동네

여수반란사건 때 직접 겪었던 일

땅고개 이야기

남양리 북바위

큰애기 시절

피난살이

설모듬과 방천

갯석거리 도깨비

도깨비

떠돌이들 집

문지기

할아버지의 일생

용무동 무우딱

콩장사 힘자랑

뜸방

담방소

오지리 물·바위 이야기

오지리 이야기

용소 전설

마씨와 도깨비

승어와 은어

호곡나루터

꽃감

목사동 김장바위의 유래

그슴외와 똥집

주지당 이야기

김일

석곡마을 유래

성 몰락과 미륵

수박서리

은은사 전설

이순신 장군과 능파정

태골바위와 뱃석거리

월산마을

효자와 호랑이

읍내 송진 이야기

읍장 이야기

죽산 당산물

범구리 법통

거지 명당

부치고개 이야기

용모름 미신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고달다리

취명당 기우제

소나무와 지네

코재 귀신

홍진엄마 꿈 이야기

지방마을

물도둑

설산 귀신과 호랑이

청우골목 귀신 이야기

봉정과 봉황

길상암

강가에 바람이

도깨비 이야기

서당동산 전설

봉황과 마을

약천

오곡 상여소리

신이기 선생

고달면 이야기

나룻배

떡골

취명당 이야기

도깨비와 씨름한 이야기

두꺼비 껍질 이야기

보이면 안 되는 바위

애기 점지하는 바위

섬진강 모래

비봉포란

죽곡

도깨비

대사리 시집살이 이야기

문지기

삼인동과 형제봉

석곡 미륵동

뽕뽕다리 이야기

황축과 용머리

- 일러두기 -

1. 이 책은 곡성지역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설과 구전이야기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지역의 전통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문 내용은 어르신들께서 구술하시면서 표현한 말과 사투리 등을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단어 등이 우리말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가 많다.
3. 구술사 연구 조사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개인 구술에 의존함에 따라 본문 중에서 일부 내용이 변형 가공되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4. 소재목은 어르신들의 구술이 아니며 엮은이가 본문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구성하였다.
5. 이 책은 2017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발간되었으며,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제나 전제를 금한다.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 1

하늘에 구름 가네



명당

저그 고달 가든, 저 삼나무 있는 데 가든……. 거기서 가지로 보이는 것이 쥐명당산이여.

쥐명당산. 환자, 아픈 사람이 묘를 쓰든 낮어.

등등바우 지나서 한참 가든 돼. 곡성에서 제일 영험한 명당이랑께.

강대선(남. 82세) / 오곡면 오지리

사우

지금은 제사 지내는 집을 사우라고 하는가? 제사 사_ㄴ자. 집 우_ㅜ자.
암튼 그, 서원이 그_ㄴ게 섰드만. 글 서_ㅅ자 서원 안에다 사우를 만
들었어. 서원은 곡성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그게 한 360년은 됐어.
그전에 내가 곡성보다 순천 먼저 생긴 서원도 가보기는 가봤어.
아! 덕양서원 맞아. 신승겸 장군 모신 디.
여 평산 신씨들이, 그 신승겸 장군 거시기가 죽곡면 그…… 에 뭐
이나? 거가 즈그 동네야. 근디, 신승겸 장군이 거기서 태어나갔고 군
인 가서, 인자 왕건 밑에 들어가서 발탁되고 왕 대신 죽었어.
팔공산에서 대신 죽었어. 인자 팔공산에서 이렇게 왕건이 패쫓고
리 도망갈 디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군들이 가로막고 인자 차
단해블고 쥐 잡듯이 딱 포위한디, 꼼짝없이 잡히겠거든.
다 잡힐 것인게 신승겸 장수가 내가 용포를 입고 왕으로 백제 사
람이랑 싸울 거인게 뒤로 산을 넘어 빠져나가 당신 살아갔고 뒷날을

도모하시오. 요 산골짜기만 넘어가든 우리 군인들 있음께 넘어가라
고. 그 우군한테로 가라고.

그리고는 신승겸이 왕 대신 용포를 입고 막 싸웠어. 근게 적들이
왕을 잡았다고 막 좋아브러. 축제를 해블고.

나중에 본게 하하하!

그래갖고는 인자 성공을 해갖고, 신승겸 장수가 인자 희생을 하
는 바람에 왕건이 성공을 했다 해서 돌 정각을 이렇게 놓고 그 사
람들 사당을 도처에다 지어갖고 대구도 있고, 요기도 있고, 사당에
다 서원을 짓고.

나라를 위한 충신이라고. 만약에 이 장수가 없었다면 삼국통일은
누가 했것나? 왕건이 도망시켜서 왕건이 삼국통일을 했지 만약에
삼국통일을 못했다 하면 시방 머- 사망 곳에서 싸울 거 아니냐? 그
래갖고 그렇게 두 사람을 기리고 홍살문을 내리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줬어.

갖고 인자 그 평산 신씨 그 집안에 물어보면, 그 집안에 자랑이여.
내력이 있어.

강대선(남. 82세) / 오곡면 오지리

오곡국민학교

오곡국민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니까 그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오지리 애들을 갈쳐야 되는데, 오지리 사람들이 학교를 땀들어서 아덜들을 가르쳐야겠는데, 아 이게 서당을 만들자니 그렇고 어 그래서 학교를, 그 터를, 그 자리를 말하자면 덕산 밑에 그 함달이라고 한 디를 땅을 사가지고 우리 오곡국민학교를 땀들어서 공부하러 땀겼지.

그때만 해도 중장비가 크기 없으니까 오지리 사람들이 집집마다 나와서 부역을 했어. 잉, 부역으로 학교를 땀들었어.

오늘은 오지리 몇 집 나오고 내일은 윗집부터 몇 집들 나와서 일하고……. 그것이 부역이제.

강대선(남, 82세)/오곡면 오지리

오지리 이야기

오지리 사대문하고 담장들이 언제 거의 없어졌냐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사업 할 때 면에서 허물어버리라 했지. 담들이 그전까진 있었는데, 그때 거의 다 없어진 거여. 그러면서 이 사대문 문지기 집들도 없어져버렸지.

사대문 문지기들이 문만 지킨 게 아녀. 동네 대소사가 있으면 가서 일처리를 다 했지. 인자 누가 돌아가시면 문상해주고, 공계 문지기 겸 동네 굶은일까정.

문지기 자식들은 지금은 없어. 싹 다 가블고. 문지기 자식들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놀림 받고 그런 차별은 없었제.

예전에 여그 물난리가 났었다는디, 저쪽에 짐을 다 끌어갔대. 말만 들었지 내가 직접 본 건 아녀.

물이 여그 집 있는 디까정은 안 왔지. 냇가에 인자 제방이 없어. 그 냇 돌 쌓아갖고 땀기고 그래. 옛날에는 제방이 없었는데 이제 뒤로

제방을 낸다드마.

유씨들이 위로 올라간 건 물난리가 나서 간 거 아녀. 물난리 나기 전부텀 높은 디서 살았어.

여그가 삼월 가는데 아방터를 우리는 아방길이라고 불렀제. 옛날에는 귀신이 나온다고 했지. 아덜이 죽으면 여갓다 묻었응게. 죽은 아덜 말동무하라고 앞동 어른도 묻고.

거그 귀신 나와. 옛날에는 낮에도 혼자 땡기면 시렵지. 지금은 뭐 아무 귀신이 어디 있나?

우리 어릴 때는 여그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러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초록불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면 없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도깨비들이여.

강대선(남, 84세) / 곡성읍 읍내리

평바위

평바위라고, 평바위 유래를 말하자면, 평바우는 거기서 평등을 지고 제를 지냈다고 해서 평바우래.

평바우 흘떡 위를 넘어서 밑을 내다보면 저기 저 그전에는 물이 났었어. 물이 났었는데, 지금은 인자 물이 안 났어.

저, 에— 인자 저 물을 떠다 마시면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뭐 아들을 난다고 그런 유래가 있어. 여수 최씨라고 최…… 그전에 말을 하면 최곰보라고 그 양반이 그 물을 떠다 먹고 아들을 낳았어. 그 이후로도 평바우가 그 유래가 지금도 흘러 내려오고 있지.

강대선(남, 82세) / 오곡면 오지리

당산나무 전설

당산나무 베면 피가 나오고 사람이 죽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거기를 여간해서 동네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지 하나도 손을 못 대. 왜냐면 당산나무를 베면 당산나무에서 피가 나와. 글고 사람들이 죽어.

인자 우리 할아버지 왓대…… 하여튼 이 이야기를 여러 해 전설로 들어왔어.

강준호(남, 87세) / 곡성읍 덕동리

봉사 시어머니

남편이 과거시험을 보러 갈라고 하면서 자기 마누리한테— 어머니가 봉사여. 시어머니가 봉사여.

자기 어머니가 봉사니까 마누리한테 어머니가 앞도 못 보시니까 어머니 간호를 잘해드리라고 그랬어. 어머니 간호를 잘해야 내가 과거시험도 마음 편하게 보고 오고 그런게.

그 마누라가 걱정 말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 간호는 내가 잘하겠다 그랬어.

남편이 과거에 시험을 보러 간 뒤부터 뭐 반찬을 할 것이 없어. 그래서 통 지렁이를 잡았어. 하하. 고놈으로 국도 끓이고, 지지고. 고놈으로 자꾸 그런게 아들이 없은게 더 잘 먹어, 할머니가. 할머니는 봉사라 안 보이는데 아들이 가버린 뒤로 나를 맛있는 거를 자꾸 해줘.

그런게 “어휴. 아들이 있으면 아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냐. 아들도 없는데 나 혼자, 이 늙은이 혼자만 묵고 살만 찌서
어찌겠냐. 아들 오면 요렇게 잘해준다고 자랑을 해야지.”

그리고 죽 썬 박 밑에다 며느리 모르게 여기다 한 마리씩 너놓은
거야. 고기를.

그러고는 인자 아들이 과거시험을 보고 온게 어머니가 살이 찌갓
고 아들 보기가 참 좋아.

어머니 간호 잘해줘서 고맙다고, 어머니 몸이 저렇게 건강한게 얼
마나 좋냐고 참 고맙다고 했단게.

어머니가 그랬어.

“아야, 너가 간 뒤부터 저 아가 어찌 나한테 고깃국을 날이 날마다
끓여주고, 볶아주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몸이 참 좋다. 참말로 효자
며느리다.”

인자 그랬어. 근게 아들이 물었어.

“어머니를 무엇을 그렇게 잘해줍디까?”

“나도 이름도 모르겠다. 안 보여서. 여기 좀 볼래?”

봉사 어머니가 한 주먹을 탁 내서줬어. 지렁이가 싹 말랐지 요
렇게.

인자 서방님이 있는데 며느리가 같이 안겼는데, 시어머니가 고놈

한주먹을 탁 내줌서,

“니가 하도 맛있는 거 해줘서 내가 아들 오면 자랑할라고 너냈
다고.”

하고 요렇게 탁 내민 거야.

글자 아들이,

“어머니, 지렁이요!”

그런게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번뜩 떠. 며느리는 부끄러워갓고 눈
을 딱 감고.

그런게 봉사 어머니는 눈을 턱 뜨고, 며느리는 눈을 딱 감아불더
라네. 하하하…….

고명순(여. 69세) / 입면 흑석리

친구

옛날에 아들이 친구가 좋아 친구를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또 친구 집 간다.

아들이 놀라가쁠 적에 아버지가 문간에다 꼬챙이를 싸서 덮어놓고
“내가 바깥에서 걸인을 데려와서 한번 때렸더니 죽어부렀다. 죽어 부렸으니 느그 친구 데리고 산속에 묻어볼자.”

아, 아들 친구가 오니까 그런 소릴 한계 싹 다 가부러.

에이 놈들. 아버지가 내 친구를 오라 해볼게. 내 친구가 와도 그리 해 볼게. 그리고 아버지 친구를 불렀어.

“하이고. 내가 사람을 하나 죽여서 덮어놨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데 골짜기에다 갖다가 묻어볼제.”

아버지 친구가 거적때기를 더 갖다 덮어놓으면서 그러더래.

“봐라, 친구가 이래야지. 니 친구가 친구냐? 밥만 먹고 술만 먹으면 그게 친구냐?”

공끝네(여. 101세) / 오곡면 봉조리

할머니의 삶

열아홉에 죽곡 신평서 동암으로 시집을 갔어. 신랑이 나하고는 네 살 차이인데, 그때 남편이 군대 갔다 집에 온 다음에 내가 큰놈을 배에 뺐어. 뺐는디 남편이 기출을 해버렸어. 기출을 해브러서 나는 그러면 못 살겠다 하나까 그냥 한번 살라고 해. 그래서 살았어.

애 하나를 스물한 살 먹어서 낳았는데 그놈 낳고 남편이 기출해 버렸어. 한동네에서 엄매 같고 한디 거, 각시랑 나가브렸어.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더니 큰놈 아홉 살 땐가? 지금 동생하고 예순셋이고 손아홉이면 몇 살 차이야? 네 살? 돌아댁기다가 집에 와서 또 배에 애 놓고 맨날 안 들어오고, 가끔 와서 만들어 놓고 가블고.

그 각시는 나보다 더 낳았어 얘기를. 그 각시한테 낳고 나한테는 큰놈은 어병병하게 낳았어. 아 그리고 가본 거여. 그때는 이발이 어떻게 애린지. 그냥 이발이 애려도 참으면서 베를 짰어. 그래가지고도.

남편은 가블고 그래서 그때 나는 요리 와브렸재. 신평으로, 동암으로 시집을 가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바람이 나서 가버리니까 다시 신평 친정으로 와서 매 살았어. 매 살면서 큰놈이랑 작은놈 몇 년 키워 놓고 내가 서른아홉에 재가를 했어.

이빨이 그냥 글고 애려. 빼도 애리고 안 빼도 애리고. 막 하루 종일 아파해서는 정작 온 게 변병이여. 변병인데 저 할머니가 그래.

“너는 시집가서 애길 나야 이가 안 애린다! 사람들이 이쁘다 하는데 왜 안 가냐.”

그래서 어! 나 안 가라! 우리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안 갈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한다고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라? 집안 망신이요, 안 갈라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죽으면 뭐하잖나? 그래. 그래서 전주로 갔어 인자.

가서 본께 남편이 우동장시여, 우동장시! 저기는 이혼하고 각시도 시집가블고. 군대 갔다 오니까 각시가 없더래. 서방이 없어서 가브렸어. 그 각시가 애들 둘을 낳았더만. 그래도 내가 키우기는 안 했어. 저기는 인자 애들이 다 커본께 애기는 안 키웠어. 우리 큰놈 6학년때 갔네. 큰놈은 외갓집에가 있고 혼자 갔어.

가가지고 애가 들어서서 낳았어. 나는 피한디도 근디 어찌어찌하

다 본께 애를 하나 낳았어. 우리 막둥이. 막둥이가 참 잘혀.

남편이 우동장시해가지고 번 거라고 다 띠어버렸어. 돈 벌어가지고 오면 안 줘. 글구 빌린 사람들이 안 준께 못 받고 띠어버렸어. 우동장시한 돈 벌어서 남 쫓지 참 내!

그래가지고 요리 왔어, 신평으로. 와가지고 친정집에서 방 하나를 가지고 살았어. 아버지 일 땡기는 거 같이 땡겼지. 거기서 막둥이 키우고 살다가 죽곡소재지로 왔어 또.

죽곡소재지로 와가지고 우동장시를 한 해 했어.

한 해 해보니까 장사가 잘 안 돼. 막 안 되니까 날씨가 추워진다고 안 해. 그래서 다시 신평으로 와서 계속 살았어.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가 영감이 전주로 가더니 신평으로 안 들어와. 그러고는 혼자 죽어버렸어. 우리 막둥이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에 보내 놓고 살다가. 풍채도 그만하고 건강은 했는디.

그래서 내가 전주로 갔다가 그냥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살았어. 큰놈이 있는 데로 와가지고 이제 그놈 키우면서 살았어. 영감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신평에서 키우면서 살아야지. 신평 살다 군내버스 기사들 밥 해줬지. 밥도 한 20년 해줬을 거야. 군내버스터미널에서 밥해 주고 밥값 나오는 거 가지고 살았지. 우리 애기들

이 장기는 지그들이 벌어서 갔어.

신평 와서 살다가 영감 뉘여놓고, 한미에 맡겨놓고, 저기 한미원에. 그래가지고 폼지락폼지락 계속 일해서 뭐이나 인자 보족한 오른 뱅이를 하나 샀어. 그렇게 사 놓으니까 이제 20년,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안 빌리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되어부렀네. 다 늙고 파킨슨병이 온 거여.

아픈 데는 별로 없어. 근데 몸이 막 흔들려 자다가도. 그래도 기사들 밥을 했어. 내가 논다고 하니까 누구는 밥 못 챙겨주냐고 가서 놀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챙겨주지 누가 챙겨주냐 그래.

밥 먹을 데 없어서 차리면 기사들 뒷방에서 먹고 재우고, 글고 내가 논단께 절대 서운해하다. 그래가지고 인자 타지로 여행 가는 두놈 보면 그냥 옛 저녁에 두 명이 와서 산다 해. 그면 인자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재차 시집갔던 그 영감 자식들하고는 왕래가 없어. 다 키워서 시집 장가랑 보냈는데 아예 그 수년이 몇 번이 끊겨부러가지고 찾아오도 안 해.

우리 막둥이는 이제 벌여가지고 장가간다고 어머니라고 오라 하느구만. 그래서 갔었지.

다른 놈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애인이 있었어. 군대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살았는디 그놈도 지 아비 닳아서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렸어.

내가 자식들이 그리 많은데도 이렇게 요양원에 와 있는 건 호적에 올라 있지 않아서지. 우리 막둥이랑 내 큰놈들은 본실들한테 실려 있어. 큰놈들은 막둥이 동생 아니며 소릴 하고, 큰놈은 서울 가서 장가를 가고. 둘째는 전주 왔다 갔다 살고 전주서 댕기고, 또 막둥이는 군대 갔다와 가지고 전주서 살다가 또 이제 어디 관할로 갔어. 각시랑 가서 살라 했지.

내 혼자 살았는디,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잘 이양을 해가지고 이곳을 먼저 몇 달을 댕겨봤는가 봐.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안 좋대. 한림원이 생긴 다음 우리 막둥이가 아 이리이러 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어.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리 외븐 거여.

오니까 김 선생 있잖아! 동보! 그것이 저기 앞에 마당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앉게 해줘. 아가씨 왜 여기 나왔어, 하니까 나 돈 벌어야지? 좀 반갑더라. 내가 밥 해가지고 점심밥에 들고, 잠시만 내가 시양에 해논 밥이라도 그럼 또 맛나게 묵어. 묵고 나서 아이고 엄마 잘 먹었네 잘 먹었네 그래.

근데 지금은 허리가 아퍼. 어깨가 아퍼. 다리도 그냥 시렵고.
지금은 새끼들 사는 것 보고 죽고 싶는다. 근깨 아들들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내가 어서 빨리 좀 다른 일을 해야 된디 못 따
라댕겼어.
난 이제 괜찮아. 아들들이 잘하니까.

김금순(여, 84세) / 곡성을 획정리



목화

어떤 사람이 어디라다냐, 뭐 어디로 미영을 타러 갔었대.
미영이 뭐냐믄 거 모…… 목화, 목화! 꽃 중에 있자네. 목화라고 있
자네. 그것을 인제 솜을 빼갓고 덩어리를 타. 기계로 그거 타다가 이
렇게 실 뻗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걸어서 갔는디, 걸어서 인자 미영을 타갓고 오
는디, 저물어갓고 어디 길을 돌아서 오는디, 아, 저만치에 한참 왔다
네. 근데 아, 오다 봉개로 워디여 미영은 어디로 다 달아나뿔고 자기
혼자만 있더라네.
새벽에 봉개로 인자 저 도깨비에게 흘켰어. 도깨비가 사람 흘킨다
고 그리잖애.
밤이 저문디 왔대. 땅거미에 걸어서 미영을 타서 짚어지고.
근데 저녁 내 워츠게 하고 돌아댕겼는가, 아치게 날이 썩는디 미
영은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만 텃불발에가 있드래. 저녁 내 도깨비

가 끌고 멩겨갓고, 그레갓고, 아 그레갓고 본께 온 산천에가 막 미영
이 다 여기저기 묻혀버렸드랴요.

김금옥(여, 79세) / 오곡면 입북리

석곡 해방비

석곡초등학교에 있는 해방기념비에 '1947년 8월 15일날 세웠다'
고만 써졌는디, 해방 기념비라 그레갓고 그렇게만 써졌다요.

그 글씨는 그때 석곡면사무소 면서기를 한 조광만이가 썼어. 글씨
를 잘 썼응게.

그때 그 석곡번영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서서 동네 사람들이
그때 돈을 걷어서 했을 거여. 거그 회장을 지금 현재 양봉일 하신 김
재봉 회장님이 했고, 그 후로 회장을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
다 자꾸 바뀌져.

원래 비석 세웠던 디는 석곡로 52, 거가 처음에 해방 이듬해 8월
15일날 비석이 슌 디여. 지금으로 따지면 석곡소재지 보광당시계하
고 52번 51번 그 사이일 것이니께. 근디 6·25 전후에, 몇 년돈가는
확실히 모르지. 현 위치로, 석곡초로 옮긴 거여. 요리 소재지 확장인
가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것이여.

그때 사진 봐봐. 김정 양복 입으신 분, 그때 번영회장님 김재봉 씨고. 그리고 여기 김정수 씨, 한복 입은 분은 김종수 씨고. 김종수 씨는 그때 건립위원회 들고, 추진회 들고 그랬제.

그 건국준비위원회 회장님이 김재봉 씨.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해방된 이듬해에 석곡로 52로에다가 해방비를 세웠어. 52로 부근에다가. 그래가지고 6·25 전후에 현 위치 석곡초등학교로 옮겼다고.

이게 그때 사진이여. 그때 그 내용을 써 놓 거여.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어. 글고 그 흥봉 이씨 그분들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아마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명단에는 없고, 후원을 많이 했지.

김기상(남. 87세) / 석곡 유봉리

노시랑골

노시랑골 알아요?

노시랑골은 여기 여 죽산하고 대어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산이. 지금은 이제 없어져서 이름만 있게.

사람은 안 살고 그냥 골짜기 이름을 노시랑골이라고 했는디, 거기는 머시냐 그 과대가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

김동표(남. 66세) / 옥리면 죽산리

소 잡는 가구

그니까 옥과중학교에서 커브 돌아간 데 있지요?

거 옛날에 길 넓혀서…… 거기 도로 나온 디 술집 지나서 보면 술치, 거기에 술치 그 소 잡는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버렸어요.

옛날에 거기서 소를 잡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소머리나 껍질 같은 것을 거기다 말리고 어쨌고 했다고 그래요.

김동표(남, 55세)/옥과면 죽산리

동산리 모래

섬진강이 지금은 모래가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많았잖아요. 모래가 요 길 있는 데까지 있었어요.

그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은께, 비가 오면 전부 모래가 떠나와요. 떠나와서 인차 비가 오면 많이 떠나와가지고 거의 물로 씻어버리니까 깨끗한 모래가 되지요. 그래가지고 모래가 가득 찼는디 요놈을 모래를 캐 가든지 해가지고 집을 짓고 뭇 하다 본께, 모래를 인차 늘 퍼가본께 모래가 없어져요. 강이 패여버려.

공께 인차 여 군이나 면에서 절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는 퍼가지를 못하게 해본거여. 그래가지고 그 모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회랑 여기저기 움직여서 계속 모래를 파묵어본께 여 강이 전부 뼈따구라고. 전부 바우가 깔렸어. 그 많은 놈을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저 뜰 물할 때만 해도 한 7, 8m 빼부렸어요. 강이 지금은 전부 뼈따구만 있지. 그것만 있고 모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워!

모래가 많을 때는 거기서 각 마을마다 씨름대회 하고 배구 농구 뭐 그런 거 하고 놀았죠.

모래뽕 우리는 그저 하라고 할 게 못 된다 그랬어요.

그 양산업체 운택들이 모두 뜰뜨러와가지고 이삼 일씩 머물고 가 버리니 어떻게 살겠어? 못 살어, 못살겠다고 했다고 해. 옛날 그 배고픈 시대에 쌀이 없어지니까.

아 그 뭐야, 뜰뜨러 온 양반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묵고 가브렸 다니까. 아무것도 식량도 없는데 그 푸제죽을, 밀을 갈아가지고 뚜들다가 몰라서 푸제죽을 가뒀가지고 그놈을 밥을 다 해버리면 아 한 집이 다 먹도 못하고 막 이 집 저 집이 다 훔당께. 다 손님 대접 안 한 집이 없어요. 모래가 많으니까 외지 일가들이 뭐 집집마다 와요. 와가지고 모래 파묻어 줘, 뵈 해줘. 하면 일 못하지, 밥해서 먹어야 돼! 애로가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힘들어서 살 데가 못 돼 어른들이 그랬어.

조개 없어진 지는 몇 년 안 돼요. 조개가 납작한 것은 모래 속에 있는 디가 태가 나서 알아. 요리요리 해서 손을 집어넣어 잡으면 돼. 물로 패여갓고 깊은 데 가면 많이 잡았지.

지금은 참 아쉽지. 모래가 있었으면 이 동산리는 완전히 이름난

관광지 되어버렸을 것이네. 대짜 포그레인으로 파가 부렸잖아.

6·25 때 농사짓는다고 도로를 팠는데 물이 안 올라온다고 독을 남자들 키만큼이나 낮췄어. 저 위에 섬진강 농사짓거든. 여 강을 뚫어가지고 여 강 사이에 물 푸마 이겨, 그러니까 옛날에 놔 놓을 사람 한자를 낮췄다니까 독을. 낮췄어 요만치 있는 것을 요만큼 낮췄다니까. 없어진 게 강 모래이지. 자갈은 본래 없었어.

여 옛날에 육아를 집에서 했잖아? 열개미 치면 없어 싹 그 밑으로 빠져 버리니까. 그때는 자갈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모래도 없어. 참 아쉬운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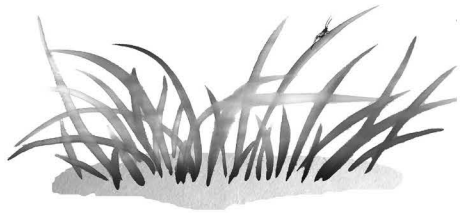
여기 나룻배가 있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배를 사서 세를 주고 배 그놈만 건너주고 해도 잘 먹고살아요. 한 번 건너주는데 그때 돈으로 10원인가 5원인가 해.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짜은 칠 거여.

모래 없어져 버린 지는 한 4,50년 될 거야. 한 40년 되겠구만. 내가 그 씨름하고 다닐 때가 한 40년째 되었을 거야.

젊었을 때 저녁이면 강변에서 잠자지 여 집 안에서 잠도 안 자요. 그냥 거기서 시원하게 잠자고 놀고 별도 보고. 아 거기서 씨름하고 놀다가 거기서 그냥 자고 집에서는 전부 거기서 잘 줄 알지. 집안에

가서 잘 줄은 몰라. 그때 젊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놀제.
안타까운 얘기에요.

김병도(남 83세) / 곡성읍 동산리



등등바우와 딸섬

왜 동산리가 생겼는가, 그냥 듣는 말에 의하면 이러. 근게 우리 김가의 38대손 나로서는 38대손 할아버지가 서산서 살다가 묵고살기가 복잡한께 여기가 사람 살 데가 아니겠냐,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동산리에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우리 시조들이 퍼져 살고 있어요. 우리 김가들이.

여기에 등등바우라고 있는데, 거기 물이 깊어가지고 이놈이 땡글땡글거리면서 가는 것 아니요! 그 명주실이라고 가는 것이 베 짜는 거인디 그놈 세 타래가 들어가게 깊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 데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요곳에 자리를 잡았대요.

여 동산리에 있는 섬은 그렇게 남원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 딸섬이라는 섬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마지막 섬진강 끝에가 떨어진 것이 아까 그 딸섬이에요. 여기서 별로 안 멀어. 조금 가면 있어요.

근께 한 아줌씨가 새벽에 자다 밥을 하러 인나서 주위를 보니까
웬 산이 떠내려오는 거여. 이것이 남원의 산성에서 떠났어. 이것인디,
사람 입장에서 산이 있다고 해본게 딱 멈춰붙지라.

그 아줌씨가 아들이랑 서방이랑 집안사람들한테 산이 떠내려온
다고 얘기했는디, 거짓말이 되어부렀지. 분명 산이 떠내려왔는디,
인자사 본게는 산이 딱 멈춰부렀거든. 어디 뭘 산이 떠내려오냐고,
짜기 저것이나고. 그래갖고 안 믿고 거짓말이 되어부렀네.

그거이 팔섬이 되었지. 그게 바로 그 큰강 물 가운데 딱 붙었어. 그
게 팔섬이야. 비가 많이 오면 섬이 잠겨요. 그전에 우리가 거기서 고
구마도 주워 먹고 또 밭뽕기매니로 가꿔 묵은디 짜가 딱 지나 부렸
어. 그래가지고 바우만 남았어. 바우만.

김병도(남. 83세) / 곡성읍 동산리

개미랑 호랑이

옛날에 아버지가 쌀을 빌러 가는데 개미랑 저 호랑이 새끼가 하구
에 떠내려가더라. 그래서 둘 다 건져왔대. 근데 아버지는 호랑이를
큰 머슴마를 줄려 그러고 어미는 작은딸아를 줄려 그래.

그래 머슴마에게는 호랑이를, 딸아에게는 개미를 줬는디, 저녁에
한집에 살아도 큰애가 어디서 잔지를 몰라.

어느 날 저녁 딸이 가만히 놓고 있음께 대뜸 호랑이가 머슴마한테
난데없이 욕을 하는 거야.

“그렇게로 바빠!”

그래서 호랑이 욕먹고 착실히 같이 잘 살았대.

김복남(남. 86세) / 임면 흑석리

평상 이름

젊을 적에 한 사람이 가난해. 가난한 것이 철천지 한이여.
그렇게로 뭐냐, 평상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딸을 줘라,
그랬어.
조선이 팔도여. 조선 팔도를 땡겨도 평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없어.
어느 날 밤에 거지가 애를 낳았는데 평상에서 애를 낳았다고 평상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래서 평상이라는 애한테 딸을 줘가지고 둘
이 잘살았다.

김복남(남. 86세) / 입면 흑석리

삼기 도대문 이야기

원래 여 마을에 문이 여그 두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니?
일곱 개 있었어. 마을에 전부 다 도둑놈 못 들어오게 문을 달아놨제.
저기 삼구 아저씨 댁, 여기 끝에서 그리고 일구에도 있고, 저-쪽에
도. 궁께, 우리들 어렸을 때는 두 개만 봤거든, 저쪽에. 근데 이야기는
들었제. 옛날에는 오백 가구 육백 가구 있었제.
문에 담을 다 쌓았어. 도둑놈 못 들어오게. 대문만 시워 놓고 초가
로 했어. 마을 생길 때부터 있었는데, 근디 인자 문이 헐어가지고 없
어졌지. 새마을사업은 그 후에 있었고, 대문 다 달아놓고, 낮에는 열
어놓고 밤에만 닫고, 문지기는 없었지. 판자로 저쪽에서 연결돼가지
고 문을 걸었대. 요즘처럼 뭐 크다란 문이 아니고, 옛날 것으로다가
해놨지. 그니까 집같이 똑같이 지어서 초가로도 했고 기와도 했고.
문이 아니라 집이여 집. 집 형태로. 도둑놈 들어온다고 처음부터. 여
그가 길목이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다닌게.

여그 저 안쪽에 지붕이 팔각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 저저는 가정집이었제, 가정집. 주위에 옛날 집이 있었는데, 광주로 팔았는데, 광주서 제각을 짓는다고 집을 뜯어가본 게 있지. 저 안쪽에.

김성수(남, 83세)/삼기면 원동리

자치샘 이야기

나도 우리 친정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거당? 아는 대로 이야기해 줄게.

순천 송광사, 그 송광사 스님에 관한 이야기야. 공께 옛날에, 옛날 스님이야잉? 유명한 보조국사 스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야.

여그 나 사는 데 옆에 보면 만연사 만연폭포가 있어. 산기슭에~

그 아랫마을에 옛날에 예쁘고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 인자 그 처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만연사 옆에 있는 자치시암에 가서— 아, 자치샘. 물을 길어다 먹고 허는 공동샘을 사투리로 자치시암이라 그래. 거기에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리던 중에 어느 날, 자치샘 한가운데 참외 한나가 떠 있더라. 신기하지? 인자 그걸 먹었다, 그 처녀가. 근디 먹었는데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야. 임신을 했

어. 처녀가 애를 뱌어, 참외를 먹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날까 봐서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만 몰~래 몰래 열 달을 이리코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대.

아들을 낳았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잖아. 그니까 쟁피하잖아, 부끄럽고. 옛날엔 더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도 처녀가 애기 배른 손가락질하잖아. 그래서 개를 보자기에 싸서 산기슭에다 버리러 갔어. 그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야, 처녀가.

가서 딱 버리고 올라고 그러는디,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학들이 날아오더라. 애기 주위로.

그래가지고 인자 애는 버리고 왔어. 근데 그 애를 학이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래갖고 키운 거야. 그래갖고 어찌게, 어찌게 학이 키워가지고 애가 다섯 살이 됐어. 그니까 다섯 살 정도가 돼가지고 개가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로 내려왔는데 먹을 것도 없지. 잘 곳도 없지. 그래서 애가 옛날로 보든 부잣집 있지, 부잣집은 하인이 있잖아. 하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서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밤에는 스스로 다섯 살 때 공부를 한 거야. 소학도 배우고, 천자문도 배우고. 그니까 머리가 겁나게 좋았지.

그 애기가 인자 그래갖고 장성해서, 순천 송광사로 출가해서 훌륭한 스님이 됐어. 그분이 바로 보조국사야!

근데, 자치시암이 지금도 있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 이게 보존은 돼 있는데, 물은 못 먹어.

화순에서는, 화순읍에서는 자치시암 설화가 아주 유명해.

김영숙(여, 49세) / 화순군 화순읍



마전리 귀신

옛날에 인자 우리 아버지가 그 겸면 마전리라고 있어. 거기서 인자 마전리 거 방매? 방땀가? 근께 우리 아버지가 초상이 낫다 한께 저기를 인자 딱 가신다고 해저름에 딱 나셨어. 해가 인자 설뽀한디 나셨어.

인자 우리 아버지가 하얀 두루매기를 입고 갔어. 근디 인자 그놈을 입고 간디 카요런 산길로 가.

인자, 인자 막 좀 그 날씨가 별로 안 좋은께 우리 아버지가 우산을 빼죽한 놈을 들고 갔대. 그래갖고 그놈 두루매기 입고 해저름에 간디, 아 저 막 산길로 간디 거기로 간께 막 이바리가 희연께 내놓고 막 귀신인가 머인가 나오더라네. 헤헤에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요렇게 인자 막 손을 흔들면서 간디, 그거이 앞에 나오드만 막 우리 아버지 앞으로 오더라 막. 근께 우리 아버지가 우산으로 이이이 이 새끼 우산으로 찼렀대. 찼렀는디 둘이 막 실랑이

를 하다가 인제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거야.

근디 인자 그때부터 저녁 내 산길을 해매고 어디를 끌고 땡졌는갑서 우리 아버지를. 그래갖고 정신을 차려갖고 본께 새벽이더라. 새벽에 정신이 바짝 깬것지. 인자 정신을 채려갖고 있는디 우리 동네 뒤쪽에 양쪽 밭이 있어. 그가 있는디 우리 아버지를 그 우에 먼 땅에 다 갖다 놓혀놔드래.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인자 하도 아버지가 안 오신께 인자 그 길로 간께 그 밭으로 가셨대. 근데 아주 얼굴도 다 굵히고 옷도 다 찢어져블고 막 그래갖고 그가 처박혀갖고 누웠드라네. 저녁 내에에 끌려땡겼나 봐. 그래갖고 엄마가 인자 동네사람들 데블고 와서 집으로 테꼬갔지 아버지를. 근디 그 초상집에서는 초상났으께 우리 아버지가 올 줄 알고 인자 기다렸지.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브셨당께. 한 2년 살다 돌아가셨는디, 우리 아버지가 우리보러 이러저러 할 때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 못 가.

김옥엽(여. 79세) / 곡성읍읍내리

몬당 이야기

압록에 몬당이 있었는데, 거기 무덤이 몇 개 있었어. 그거이 오씨들 묘인데, 옛날 철도 안 날 때는 묘 밑에가 우리 압록에 와서 활 쏘 사장터여. 활 쏘 디라 그 말이여.

그래갖고 인자 철도가 난게 저기를 끊어블고 그 몬당이 와서, 오씨들 집안에서 묘를 요로저 좋게 써놔서 때가 좋은게 애들이 미끄럼 탈라고 많이 올라가서 놀고 그랬지. 오씨 집안 묘여. 오유근 씨라고, 그분이 많이 다녔어.

지금은 그것을 압록 사람이 사갖고 거기다가 묘만 놔두고 전부 다 감나무 승귀부렸어. 근게 애들이 놀 수가 없지. 거기 올라가면 압록이 다 보이는데. 원래 압록이 지금 있는 압록 소재지가 아니고 섬진강 건너편에 마을을 처음 형성했대야. 거가 백이십 호 정도 살았대야. 거가 흔히 마방, 말 놔서 키워갖고 말도 바꾸고. 그리고 또 여 구레로 내려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

그 무렵에 압록에 건너온 사람들이 뭐 한씨하고 박씨하고 김씨하고 한 서너 집이 건너와 갖고 부락이 형성됐는데, 일정 때 일본놈이 점령해갖고 철도를 여 저 놓으면서 인자 그리 모이기 시작했지. 철도가 난 뒤로는 인자, 나무가 서울로 반출이 되니까 보성강 뗏목이 흘러지, 또 섬진강에서 뗏목이 흘러지. 그래서 압록에 와갖고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로 모여가지고……. 근게 집단적으로 각자 와서 모이니까 성별이 거하고 나쁜 집안이 없어. 제일 호수가 많을 때가 1940년대?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떠났네.

김용백(남, 82세) / 오곡면 입북리

보성강과 압록강 은어

압록은 두 개 강이 합해지면서 와류가 생기고 물 흐름이 빨라지니까 물이 안 썩고 깨끗해서 모기가 없어.

여기 은어가 옛날에는, 저 하동서 올라올 무렵에는 예를 들어서 15cm면은 여까지 올라오는 기한에 전부 다 커가지고 와서, 은어가 여울을 타고 내려가는 물을 거꾸로 올라오니까 이제 힘이 세져. 그래서 압록에 오면은 보성강하고 섬진강에서 낚은 은어 맛이 구레에서 먹는 거와 압록 와서 먹는 거가 차이가 나.

똑같은 은어인데 압록에 와서 먹는 은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 갖고 오는데, 보성강 은어는 조금 와서 검은색이 있어. 색깔이 좀 어두운 색이 있는데, 섬진강 은어는 어둡지를 안 해. 보성강은 바위가 있어. 자갈이 주욱 깔려갖고 있으니까 강바닥에. 섬진강은 모래가 있으니까 희애.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것은 섬진강 은어, 요놈은 보성강 은어 하고

알지. 근디 맛은 또 섬진강 은어보다 보성강 은어가 더 맛있어. 이게 바위 사이로 와서 먹이가 많지. 은어란 것은 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돌에서 질어 나온 그 이끼라고 있어. 이끼를 뜯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보성강은 먹는 것이 많고 섬진강은 말하자면 모래가 많으니까 보성강 은어보다 덜 먹으니까. 그런 차이가 나와.

근게 옛날에 모래 있을 때는 여름에 모래밭에 와서 실 조금 닳아진 놈 갖고 와서 은어도 많이 잡고 그랬어.

보성강에도 은어가 올라왔는데, 인자 강을 보로 막아버리니까 은어가 못 올라와. 구레읍에서 저 문척 간 다리 밑을 막아 났어. 그래서 못 올라온디, 도에서 뭐 돈 주고 뵈 해도 와서 철거하라 그래도 철거도 안 했는갑서. 그니까 그 뒤로는 은어가 덜 올라와. 원체 잘 못 올라와. 비도 얼마 안 온께.

김용백(남. 82세) / 오곡면 입특리

압록 사람

압록에서 산에 일, 삼판이라고, 저 이기는 놀이 삼판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자 나무가 와서 철도로 서울로 후송해서 나무를 팔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무 허가를 내가지고 베가지고 고놈이 오는데, 보성강에서 뗏목으로 내려오고, 또 섬진강에서도 뗏목으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압록에서 살기가 제일 좋았어.

교통도 좋을뿐더러 서울을 직접 상대하니까 문화가 와서 곡성이 빨리 발달했어. 곡성 저 군소재지 읍내보당은 압록에 와서 서울문화를 빨리 받아가지고, 여 살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다 그랬어.

곡성에도 철로가 있지만 판로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잖아. 서울서는 그때 압록에 가야 나무가 좋다 하고 왔어. 그래서 우리 압록 주변에서 나무를 베서 판 거지. 주변에서 전부 다 베서 뗏목으로 내려왔

어. 하, 근계 사람이 필요하잖아. 뗏목에……. 고놈 가서 물에서 도로 올라오게끔 한계 돈벌이가 좋았어. 첫째는 돈벌이가 좋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밀려온 거지.

그러니까 압록에 와서 일 못해서 노는 새가 없어. 각자 가서 산에서 나무해다가 역에 가서 팔고 그러니까.

우리 부락은 거…… 모임을 별로 안 돌아. 저 촌보다는 좀 틀려갖고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지.

곡성군에서 압록은 육이오 때 공산당 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압록 사람은. 그니까 사상적으로도 압록이 유명해.

근계 판 디는 뭐 공산당을 하고 나오는데, 압록 사람이 공산당 하는 것이 없고, 육이오 때 여 역지로 만드는 간부가 공산당이 되어갖고는 와서 치어.

그런디 공산당 활동이 없어. 근계 그것으로서는 곡성군에서는 사상적으로 압록 따라갈 사람이 없어. 압록서는 스스로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발견을 못 해.

그러니까 부락민이 다 자부심이 있고 또 오늘날 와서 우리 부락은 폐지 안 키우지, 소 안 키우지. 또 개도 얼마 안 키워. 그러니까 부락 환경이 그러고 좋아. 글고 옛날에 강감찬 장군이 앉았다 갔다고 해

서 모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물이 고여갓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와서 모기가 안질 때가 없어.

그런게 오늘날 와서 보면은 우리 부락 압록같이 깨끗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냄새는 안 나. 첫째는 냄새 안 나지. 글고 인자 와서 개 몇 집 키우는데, 전부 다 묶어 놓고 키우지 놓아노코 키우지는 못해. 지금까지도 개는 놔서 키우지를 못해. 다 이벽 집에다 묶어 놓고 키워야지.

김용백(남, 82세) / 오곡면 입북리

태안사 경찰

6·25 그때 당시 나는 학교 댕겼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 친구네 놀러 와서 당산나무 있는 데서 자고 그랬어. 근디 한 날 저 새벽에 자동차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북한군 놈들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 그거 확인할라고 인자 태안사 내려와서 우리가 본계로 역 위에 문당으로 경찰관들이 올라가더라고. 근디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하이고! 날 새고 본계로 여 뭐냐 압록 위로 차가…… 인민군들이 와서 압록 위에까지도 훨씬 더.

그때 내 나이가 20세 미만이었으니까 시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 역전 위에 문당에서— 말하자면 북한군 척후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에 북한군 척후병 셋이 탄 걸, 그것을 썩갓고는 척후병이 죽었어. 죽여본께 벌집이…… 아이고메! 그래가지고 막 와서 난리가 났제.

그때사 사람들도 알았지. 여기 압록역에서 북한군하고 격전이 벌

어진 겨. 척후병을 쏘고 나서, 근디 다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사당이라고 하던디, 경찰관 십여 명이 와서 싸울 수는 없잖아.

경찰들하고만 싸운디, 경찰관 그 사람들 참 용감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도 여그에 대부대가 내려올 줄은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여. 그니까 개네들하고 싸우고 나서 태안사로 가부렸는디, 그놈들이 와서 결국은 알아갖고는 남회를 안 하고 요 순천 쪽으로 해가지고 태안사를 포함해갖고 와서 태안사에서 경찰관이 그러고 많이 죽었어.

압록 사람은 인민군 환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뒤에 인민군들이 차로 싹 내려간 것만 보고는……. 뭐여, 인민군 뒷에 우리 부대가 와서 막 조사를 하고 그런디, 우리땡기로 피난 간 사람들한테는 안 오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뵈 허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 지방 사람은.

그래갖고 인자 육이오가 나갔고 다 밀어분께 학교 땡기는 것도 다 중단되불고, 나중에 인자 알고 본께 뭐 14연대가가 와서 저 태안사를 점령해갖고 태안사에서 이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자 살기가 태안사 쪽 어느 부락이고 곤란했지.

김용백(남, 82세) / 오곡면 압록리

합록과 압록

여 압록에서 은어를 낚을 때는 은어로 낚아. 그러니까 인자 나가 낚시를 와서 은어 꼬랑지 세 개를 달아. 그리고 바위에 이려고 있으면 은어가 먹는다고 쫓아와. 그놈이 와서 먹다가 낚시에 탁 걸려 나오고, 나오고.

대사리도 잡는데, 섬진강 대사리가 보성강 대사리보다 굵어. 맛도 더 있고, 대사리가 먹는 것이 좀 틀린갑서.

여 압록이 원래는 합록이었어. 우리 곡성에서는 여그가 섬진강하고 보성강 물이 합쳐지는 디라고 합록이라고 이름 붙였다고만 알고 있제. 근디 여그 압록 사람들은 합록 이름이 변한 거이 중국에서 이 부상서를 지내신 그분의 묘를 찾아온 후손이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그 압록강 한자와 똑같은 압록으로 바꾼 거로 알고 있던 말이지.

저 옛날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갖고 중국서 이부상서가 되었는데, 인자 그 사람이 죽어서 그 묘가 여그 산에 있었대. 우리 압록에

저 철교를 만들어 지나다니기 한참 전에.

근디 그 후손이 자기 조상 이부상서 묘를 찾으라고 압록강을 건너가시고 내려와서 몇 날 며칠을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못 찾겠는 거여. 그레갓고 아이고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다 해서 못 찾고 돌아 갔대.

근께 인자 자기 선조가 여그 있다고 압록강을 건너왔는디, 못 찾고 돌아감서 여 동네 이름을 압록하고 똑같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합록을 갖다가 압록으로 변경시켰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해서 나도 아는 거여. 요거이 잘 몰랐는데 그때 동네에 이장님을 수십 년 하고 또 연세도 한 칠십이 된 어른이 계신디, 그때 당시 내가 뭐여 그 우리 지역 실정을 알기 위해서 물어봤어. 예전 합록이 왜 압록으로 됐느냐 한께 그런 얘기를 그분이 들려줘서 내가 오늘날까지 알고 있지.

근데 그 이부상서 묘가 시방 제각 뒤에 있었는데, 일제 때 일본놈들이 여그 산맥이 좋다고 거 뭐냐 산맥을 끊으라고 땅을 팠는디 그 이부상서 시체가 나온 거여. 일곱 자를 팠는디 시체가 그대로 다 있어서 그 시체랑 비석을 보성강하고 심진강이 합쳐지는 거그다가 던져 놨대. 저 자손들이 와서 보면 안 되니까. 글고 또 요것을 도둑으로 해놓은게 어따가 묻을 때도 없어. 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

니까 물속에다 가라안쳐분 거야. 그 자손들이 못 알게.

시방도 그 뭐 심진강 보성강이 합쳐지는 곳 거기에 비석이 있단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압록 사람은 거기서 사고가 안 나. 그 밑에 들어가면 요려고 물이 돌아. 그래서 사람이 거그 빠지면 물이 이렇게 사람을 누르고 요르고 잡아댕겨볼지. 그니까 사흘까지는 거가 있는데 사흘이 지나면 밑으로 떠내려가. 그때 그 사람 건지는 일도 했었어. 여러 번 했지.

아이고, 뭐 일당 받고 한 거 아니여. 일당 받을지도 그때 당시는 몰랐고. 구조소방대에서 와서 인명 구호를 좀 해줘라 그러면은 그런 것만 알았지 그 뭐 일당 같은 것은 생각을 못 했어.

그때 당시 내가 저 소방대장을 할 때 대체 여가 어째서 사람이 한번 빠지면 다 죽냐? 그거 알기 위해서 일종의 뭐일까, 용기라고 할까?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 그때 내가 삼십대일 거요. 젊은 혈기로 압록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걸 일부러 체험을 해본 거지.

그레갓고 손목에다가 거시기를 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그러고 물이 돌더라니까. 근께 거기 빠졌을 때 그냥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죽기 매련이여. 몸을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나와야

살아. 근계 인자 압록 사람은 만약에 거기를 들어가면 절대로 물살로 빠져나가서 살지 위로 올라올라가려고 안 해. 올라올라고 하면 죽으니께. 근데 외지 사람들은 거기 빠지면 죽자고 위로 올라올라고만 해. 물살 타고 나갈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니께. 근계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서 내가 그 선전을 해논께 우리 압록 사람은 두 강이 합한 디는 절대 가지를 안 해. 거가 합소하는 디여.

그때 당시는 여그 모래가 좋아갔고 사람들이 몇 천 명씩 오고 그렸어요. 여서 놓고, 학교 밑에도 모래가 있어갔고 좋아갔고 아주 관광지로는 여가 제일이지.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지. 지금은 인자 모래가 없는 게 덜 오지만은 그전에는 와서 모래 위에다가 이려고 해가지고 쭈욱 나오고.

그때 팔월 한 달은 저 소방대에서 하나씩 나와갔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 선전을 하고 지키고 섰어. 여기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때 사람이 죽으면 소방대가 나와서 구조를 하는데, 사람이 떠내려가면 저 밑에 하동서나 발견이 되었지. 사람이 거서 바로 죽으면은 사흘이면 뜬게. 사흘이면 뜨니까 인자 그때 와서 견지고.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이부상서 비석이랑 못 봤냐고? 아이고, 그런 거 볼 여지가 어딴는가. 막 이려고 물은 돌지 죽을까 싶어 정신이 없는다. 내가 요것을 찻는가 안 찻는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고 물이 세계 돌아썩는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는 사람이 벨로 없는다, 나가 압록의 유래를 알라고 그 동네 어른 이장한테 파고 물으니께 와서 갈쳐줬지. 그때 당시만 해도 서로가 오늘 살다가 내일 이사 갈지 모레 갈지 모르잖아. 다 객지 사람들만 와서 살고 지방 사람은 뗏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봐갔고 인자 조금씩 전했는디 젊은 사람들은 시방 모를 거여.

김용백(남. 82세) / 오곡면 압록리

솔무랭이

현대문명이 발달되어 버리고 인자 마을들이 가까워져 버렸잖아. 내가 국민학교 어렸을 때만 해도 솔무랭이 거기는 비포장길에 굉장히 꼬부당꼬부당한 길이면서, 엄청나게 거리도 멀었어. 왜 그렇게 멀었는가 몰라. 춤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그 신월리 길에서 귀신들이 많이 나온다고 무서워했었제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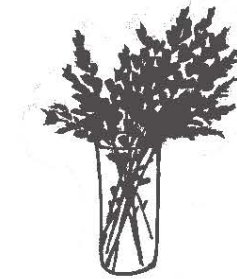
그 솔무랭이가 지금은 죽동 무슨 식당이나, 농협 주유소 옆에 보면 헤림식당! 그 자리를 솔무랭이라고 그랬어. 솔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공동묘지야 말하자면은.

근데,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라면은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은 좀 으스스 야간 늦은 시간에는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굉장히 무서워한 데야. 특히나 비 오거나 이럴 때.

어떤 한 지인은 누가 밤에 막 손을 흔들어서 나를 오라고 하는 그

런 모습이 있어서 무서웠대. 그 뒷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비닐 조각이 전봇대에 걸려서 이렇게 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인자 유래들이 섞어서 보니까 무서움을 타.

김용환(남, 59세) / 곡성읍 신월리



괴내 이야기

우리 아버님 외가는 작은 동네인데, 아버님은 그래도 그 시절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셨지. 퇴근이 거의 늦으셔.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했거든.

근데 늦게 오시면 굉장히 무서움을 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꼭 뒤에서 땡기는 기분이 드나봐. 그래가지고는 그 술무랭이 길이 그렇게도 멀리 느껴졌대. 할아버지한테 그 말씀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읍으로 나가서 편히 다녀라 하시고 읍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줘서 아버님은 거기서 출퇴근을 하셨어. 근데 그것 땀에 그 길을 보면 옛날에는 그 술무랭이 길이 좀 무서운 길이었어. 지금이야 뭐 크게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은 헤림이라는 그 자리가 파내브러서 그러지 옛날에는 어린 애기들이 죽으면, 낳다가 죽은 애들, 뭐 이런 애들도 거그다가 돌무덤 식으로 해가지고 묻고, 장독같이 해서 그 길가 옆에다 묻었다 그

러드만. 그렇게 해서 무덤을 항상 눌러주려는 뜻인가 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비가 오고 난 뒤에 돌무덤이 쓸려서 보이고 그랬어. 그니까 무섭고 그랬지.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할까?

옛날에는 괴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인자 묘촌리제. 묘촌리 거기를 괴내라고 그랬어. 옛날에 고양이 모양 같다고 해서. 괴내마을하고 내 논 사이에 시암뜰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어.

지금 애들은 그런 것이 많이 안 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유난히 몸에 땀띠도 많이 나고 많이 그랬잖아. 막 긁고. 그런데 그 시암뜰이라는 곳에 딱 가면은 그..... 시암뜰 물이 얼마나 시원하냐면 땀띠 나가지고 있을 때 시암뜰에 딱 들어가면 땀띠가 다 들어가. 지금은 경지 정리가 되어가지고 없어져버렸드만. 지금은 그 자리가 수령논이여. 그 지역이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여.

지금은 냇가 흐름이 윗길로 해가지고 동네 부락으로 이렇게 도는데, 과거에는 냇가 길이 그쪽으로 돌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냇가 길에 아파 물 두르기였던 거 같애. 그 시암뜰이라는 데가 굉장히 물이 시원하고 차가워서 그래서, 시암뜰.

글고 홍바위라고, 그니까 내 눈 바로 옆에 바위 하나가 눈 가운데 크게 나와 있었어. 고인들은 아닐 거 같애. 고인들은 아니고. 바위가 얼만해브냐면은 요요 창고 쟁반만 한 바위가 있다니까!

근데, 군인들이 훈련할 때 군사 좌표로 그걸 활용하고 그랬제.

한 15년 전에 그 땅을, 지금 그 공지를 타지에서 온 사람이 하루는 엄청나게 큰 포클레인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더라. 그 홍바위를 물어본 거여. 파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밑으로 물어본 것이지.

바위가 얼마나 크냐면 저 앞에 보이는 저 소나무보다 좀 더 클까?

우리 어렸을 때는 군사훈련을 많이 했어. 우리가 보면은 공수부대들이 많이 다니더라고. 근데 군사용 지도 좌표에도 그 홍바위가 있다고 들었어.

나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신월리 다리를 막 건너면 피내 묘촌 저기 양어장에서 올라오는 농로길이어. 그면 조금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세 단지 정도 가면 묘촌리 돌아가는 좌측으로 가는 농로길이 있어. 그 농로길 끄트머리에 있어.

내가 홍바위를 물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장님한테 쫓아가서, 저 바위는 뭐,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여기 뜰의 상징인데 그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댄 것을 가만히 놔두소— 근께

그 눈이 그 사람 소유라네. 여그 사람 같으면 손을 안 대. 쉽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도 손을 함부로 안 대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뭐라 했는데. 다른 동네서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좀 젊었을 때였어. 근데, 그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 건 자기 땅이 아니여. 그 바위 있는 논만큼은. 쉽게 말하면, 단지가 요렇게 있으면 그 바위 있는 논은 여기 끄트머리에 있어. 근께 여기는 빠져 있어.

우리가 선산 묘를 쓸 때도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축을 잡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동악산 쪽 그 부분에서 이렇게 초점을 잡고 우리가 그 좌표 거시기를 읽더라고. 우리는 그 바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위가 없어져버린 거여.

김용환(남, 59세) /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신월리

신월리를 역굴이라고 했는데 신월리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해.

근데, 인자 역굴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신월이라는 동네는 새로 생긴 동네에 가면은 다 있어. 서울을 가도 신월동, 광주를 가도 신월동, 신월이라는 동네는 전국 어디를 가도 다 있다는 것이여. 그건 왜 그러냐. 옛날 그 어사 박문수 시절 그때 보면은,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포졸들이 주둔하게 만들어 놓은 동네를 신월이라고 부른 거여.

그래서 인제 만약에, 여기도 그 어사 박문수가 인제 그 지역을 나가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남원 같으면 성춘향이 같은 경우에 했었을 때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포졸들이 출두를 해줘야 하잖아. 근다고 해서 어딜 가가지고 그군에 있는 인원을 출동시킬 순 없잖아.

그 인원들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동네 어구에 있는 신월이라는 동네여.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거기에서 그 포졸

들이 출두를 해서 그곳 관리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했던 것이 그 신월이란 동네여.

근데, 인자 그것들이 옛날 과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역굴 동네라 그래. 그래서 역굴이란 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

정확한 한문 표현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읍에서도 너 역굴 가냐? 그러면 굉장히 회를 내고 그래. 뜻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봤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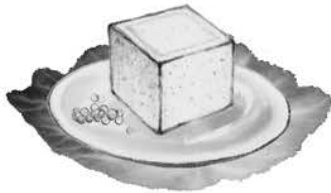
그다음에 인자 신선바위는 그 신선들이 그 바위에 내려와가지고 장기도 두고 가고 바둑도 두고 가고 하는 곳이여. 거기 가보면은 그 바둑판도 지금 현재 딱 그려져 있어. 바위에가—.

신선들이 거기 내려와서 바둑도 두고 또 장기도 두고 하면서 쉬어 가는 그런 자린데, 인자 요 신선바위를 중심으로 구월리, 월봉, 신월리 여기 사람들은 그 해에 비가 안 오고 하면 기우제를 지내러 신선바위로 올라가. 신선바위에 기우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도 지내고, 나머지 음식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 그 자리에다가 전부 다 소변, 대변, 막 똥오줌을 싸고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

그러면은 인자 신선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우와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이 지저분한 것을 씻어내야 하지 않냐? 해서 그쪽에 비를 부린 다 해가지고, 신선바위의 유래가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다녔거든.

김용환(남, 59세) / 곡성읍 신월리



수수께끼

거시기, 늙어가면서 살찐 거이 뭐냐 그러면 벼람빱.

옛날에 초가집에는 거시기, 저 흙을 부칭계로 늙으며는 흙이 떨어 지잖아. 흙이 떨어지게로 또 흙을 발라. 그렇게로 늙어가면서 살 찐 게 뭣이나 하면 벼람빱!

(벽을 탁탁 치면서) 아 이런 빅! 빅! 옛날에 초가집에는 이 빅에 흙을 발랐어. 그놈이 인자 늙어지면, 오래되면 떨어지거든. 그럼 또 흙을 발라.

금계 늙어가면서 살찌는 거이 뭣시냐 하면 이 빅이여, 빅. 시방은 보루꾸로 싸지만 옛날에는 거시기 엮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대고 흙 발랐어.

김을선(여, 86세) / 석곡면 방주리

신기리와 청계동

신기리는 원래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나린몰이라고 하죠. 나린은 넌데 곡성하고 금지하고 다니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로 달려서 나린마을이었죠. 근데 지금은 신기리로 바꿨죠.

곡성에는 큰 계곡이 청류동이라고 도립사 계곡 청류동이 있고, 삼인동에 삼인계곡이 있고, 서계리에 원효계곡이 있고, 신기리 삼인서계리 청계동에 있어 계곡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청계동은 한 2키로쯤 올라가면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에서 보면 경치가 아주 아름답죠.

근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양대박梁大樸 어르신이— 그분이 주생면 사람입니다. 남원 주생면 사람으로 어느 갑부의 아들인데, 그분이 아주 학문에 능통하시고 그 송강 정철이라든가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신 분이예요.

그러나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것은 서출이예요. 서출이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그 남원에서 현재 그 청계동 근처에서 이상촌, 이상촌을 세우고 기거를 하려고 거기다가 보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어요. 이 보정이란 말은 신선들이 노니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정이라는 정자를 폭포 옆에 짓고 거기서 자기 가족과 노비를 데리고 이상촌을 꾸리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의병을 이끌고 저기 임실에 밤재, 밤재에 가서 왜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어요.

가족과 함께 남원, 순창 의병을 일으켜서 밤재에 가서 싸워가지고 왜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워주고, 그답에 고경명 장군이 의병으로 있을 적에 좌부장은 월파月波 유팽로柳彭老고 우부장으로서는 양대박 선생이 우부장을 했어요. 유팽로 장군의 나이는 양대박 선생보다 더 적은 30대 후반이고 양대박 선생은 40대 후반이고, 양대박 선생은 벼슬을 하지 않고 유팽로 장군은 벼슬을 했어요.

유팽로 장군은 과거급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좌부장을 하고, 양대박 선생은 우부장을 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임실 운암전투— 운암전사에 나와요. 그게 유명하죠. 지금은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보물급인데 곡성군에서 그걸 찾아서 보물로 신청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운암전사를

현재 개인인 신모 씨가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하거나 남원 양씨 문중에서 그분한테 사서 그것을 보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김재근(남 83세) / 곡성읍 읍내리

아들바위

삼기면하고 석곡면 그 경계, 백청교 중간 그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들바위예요.

그 바위에다가 돌을 던져서 바위에 돌이 없어지면 아들을 낳고, 만약에 못 없으면 아들을 못 낳는다— 해서 아들바위라고 해요. 아주 바위가 커요.

그런데 한때는 그것을 누가, 아들 못 낳은 사람이 그 아들바위를 그 통째로 옮기려고 했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죠. 마을 한 대인이 아들바위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가져갔죠.

연반리 가기 전 그 냇가에 아들바위가 있어요.

김재근(남 83세) / 곡성읍 읍내리

셋고을

이 셋고을이라는 것은 새 고을인데, 사투리로 셋골이라고 하거든. 옛날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오셔서가지고, “공자 땡자님을 찾아뵈려니 거기 갈라본 어느 길로 가요?” 하고 그 부락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 셋골목으로 가시오, 하여 그 유래가 나왔다 그러.

그런디 인자 그 유래는 원래가—

우리 부락에 말을 내리라는 하마뽀가 따로 있고, 말에서 내려서 셋고을로 돌아서 향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인자 문제는 예, 우리 사투리로 봐서는 새뿌리라고…… 이렇게 말 되는데, 그 골목길로 가게 되면 바로 셋고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동하고 학정리 사이에 있는 부락이 셋골이라는 건 틀려.

김재은(남, 83세) / 곡성읍 교촌리

죽동 이야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죽동방죽 있는 데인데, 여기 곡성군의 거시기도 있을 거예요. 군지에도 나오고.

지금 죽동이 문성마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름이면 달짚 태우기도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당산제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윗당산 아랫당산이 있지요.

당산제는 윗대 어르신들 때부터 쪽 해내려오지라. 당산제 때 축을 읽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나도 글이 짧은 사람이라 별로 해독을 못 해요. 웃당산에서 지낼 때는 호랑이 호숫자가 들어가고 뽕나무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 동네에서 잠업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당산제 축이 지금까지도 이어 나오니까. 그 축을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읽어요 그 축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농악회장이랑 가가지고 당산제를 지내지요.

이장도 요것을 웃당산제 축인지 아랫당산 축인지를 몰라. 그러니

까 이제 나도 그걸 분간을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호랭이 호자가 내려온 글은 뿔도 써지고 그러니까 아 이것이 웃당산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줬어. 내가 이것이 웃당산 거라고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죽동은 저시기하니까 그 좌도농악, 그 농악이 이제 우도가 있고 좌도가 있는데 저도 잘 모릅시다마는 말하자면 그 가락이 조금 빠른 것이 좌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우리 죽동 좌도농악이 애당초 창시자가 그 저 전판익 이 양반이 누구한테 전수를 했냐 그러면 이화춘이라는 사람에게 전수가 되어가지고 이화춘이는 어떻게 전수가 되었냐 하나면 남원 가서 유사가 있고 곡성 가서 기창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기창수 그분이 전수를 받았어. 그러가지고 그분이 누구한테 전수를 했냐 하면 그 계보가 그래요. 전판익 이화춘이 그다음에 곡성 기창수, 기창수가 누구한테 전수를 했냐 하면 강우수 씨라고 여기 뒤에 살았어요. 그 양반한테 전수를 받았고 그분의 전수를 받은 자가 지금 현에 살고 있는 박대업 상쇠.

말하자면 계보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어 그 사람은 지금 무형 문화재로 돈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죽동 이 전수관을 지어 놔지 않습니까.

농악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니까 전판익 그 사람이 이제 창시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가지고 지방 곡성서 최고가 되고 있어요. 농악이 음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 있던 방죽이 바로 여기 지금 체육공원이예요.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이조 때부터 이 죽동마을이라는 것이 아마 그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 같고 죽동은 그 여기 태생이 정씨라고 그러지? 말하자면 나주 정씨지. 앞에 정씨에서 갈라져 나온 나주 정씨. 근데 잘은 모르겠어!

인자 여기 정씨는 여기 와서 나주 정씨가 서너 집 살았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한 두어 군데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정씨하고 안동 김씨가 많이 살았고.

죽동에 동악산으로 가면 신선바위라는 것이 저기 가면 있어요. 그 높은 비가 안 오게 되려는 아낙네들이 저기를 가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하면 비가 온다고 해서 신선바위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저시기가 있었어요. 나는 가보든 안 했어요. 삼기서 할머니들이 한복 입고 와가지고 막 올라가려면 경찰들이 싹 데려간 일도 있었고.

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우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신선들이 노는데 가서 더러운 오물을 놓으면 물로 씻는다 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된

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까지 다 가고 우리 이모 되신 분도 거기 왔다고 경찰서 잡혀갔다고 그래. 제가 그때 한 열일고여덟 살 묵었을 땐가? 내가 지금 여든한 살인데. 말하자면 그런 것도 보고 그랬어요.

김정은(남, 81세) / 곡성읍 죽동리

섬진강 정자

섬진강 바우 있는 데가 공복당이 있었어. 나라에 높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곡을 해, 절을 하고, 공복당이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똑 안 막아서 그런다고 공복당 비를 강에다 던져버렸어.

또 고쪽에 가서 행탄정 옆에 장씨들 제각이 있었어. 그거 뜯어볼고 없잖아.

거시기 행탄정 있는 디 보인정 앞에 있는 비는 보인정에서 세운 거여. 저쪽에 비는 보인정비, 하나는 행탄정 비고, 여기 백곡 양반 희생해서 비가 있고, 또 누가 희생해서 비가 있고, 또 아들이 죽었응께 손녀들도 만들자 해서 있어. 김학근이가 지은 것도 있어.

그리고 저쪽에 가서 거시기 오대정이라고 제각이 있었어. 언양 김씨들이 살 때, 여 제각을 지어놓고 그때는 전화가 없응께— 줄을 내려갖고 손님 하나 오면 줄을 한 번 잡아댕겨서 종을 치면 밥을 내오고, 서이 하면 술상 차려오고. 지금은 없어져버렸어.

둥둥바우는 거그 바위로 물이 흘러가면 둥둥소리가 났어. 그래서 둥둥바우여.

김중(남 84세) / 고달면 대사리



곡성 오일장 도깨비

내가 곡성시장 옆에 산 지 얼마나 됐는가 인자 잘 몰라. 아주 오래 됐어. 한 삼십 살이나 먹어서 왔을 것이여. 시방 내가 구십이니까 얼마나 된 거여?

그때는 장이 작았어. 쌀이고 콩이고 잡곡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팔았는데, 하— 그런 거 갖고 나오면 그놈을 뒷박으로 사 가는 사람이 많았어. 파는 사람도 있고. 판 것은 그거뿐이여. 곡식 명태 조구 옷 그런 거. 생선은 여수 순천 그런 디서 와서 팔고 그랬지.

또 장사꾼들은 그런 거 팔고 좌지우지해가지고 또 술 먹고. 그릇에다 국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팔았어.

그때는 일 원짜리, 십 원짜리 그랬지.

한번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처리를 해줬지. 시장은 그때가 좋지. 그때가 좋지 시방은 안 좋아.

옛날에 여기 장보러 온 사람들이 귀신 만났다고 그래. 우리 영감도 술 먹고 흘러가지고 잡혀갔다가 왔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참말로 있었지.

흘리면 그때는 정신이 없지. 이제 깨면 내가 귀신한테 흘렀다 그러지. 애네 아버지도 술 먹고 멍기다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잡혀갔다 왔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것이 도깨비지.

6·25 때는 여기서 안 살고 저 앞 동네에서 살았거든 내가? 앞 동네에서 살았는데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왔어. 막 부우~야. 집에다가 쌀을 막 모으고 쟁여 놔는데 인공 때 와갖고는 그거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때 내가 막 얘기 있었는데, 그래갖고 놀래서 밥도 못 묵었어. 아주 말도 못하.

사람들이 저그, 저~ 고달로 막 갔어. 사람들이 저기로 갔어. 거기 가서 깃벌에 가서 자고 말도 못했어.

김차남(여, 90세) / 곡성시장

3·1운동

단군 성전을 모시면서 우리나라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단군전 역내에 삼일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일공원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는데, 곡성에 왜 삼일공원을 세웠냐. 단군전을 설립하신 백당 신태운 선생님이 1919년에 곡성보통학교 학생 정래선 씨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군민들이 합세해서 1919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독립만세를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백당 선생님은 지방법원에서 1년 예비검속을 하고 대구형무소에 가서 2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산몰수를 당하고 자격정지 10년을 당하고 그담에 곡성서 떠나라는 출장조치까지 당했지요. 그때 학생대표 정래선 씨는 1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선생이 시켜서 했다는 변호사의 변론 때문에 석방이 되었죠.

곡성에서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백당선생님의 동상을

2005년에 설립을 했어요. 제가 추진위원장을 해서 그담에 2011년에 곡성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했습니다. 왜냐하면 1968년에 삼일운동기념비가 조그맣게 있는데 너무 초라해서 내가 보훈청에서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을 합치고 또 군민들이 모두 합세해서 1911년 3월 1일에 곡성 3·1운동 기념탑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백당 동상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고 3·1운동 기념탑도 보훈청에서 지정하는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어요. 이어서 단군전이 생긴 지가 100년이 지난 2014년에 백당기념관을 지었거든요.

그때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회원들이 4,300만 원 부담해서 1억 4,300만 원 가지고 백당기념관을 짓고 한 천만 원 들여서 내부시설을 했어요. 그 백당기념관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백당 동상, 3·1운동 기념탑, 백당기념관 3개가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전부 삼일공원이라 명명을 하고 조성을 해서 지금 95프로 정도 조성이 끝났습니다.

엇그저께도 그 공원에 천오십 조의 철쭉을 심었는데, 그래서 2017년 되면 거의 내가 뜻하는 대로 100프로 완성을 해서 조출하지만 아담하게 꽃도 피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와서 애국정신을 기르는 체험공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압록과 강감찬 장군

옛날에 강감찬 장군이 압록을 지날 때에 모기가 많아서 모기를 쫓는 부적을 써서 강물에 던졌더니 모기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압록은 본래 합록이었어요.

순자강하고 저쪽에 석곡서 내려오는 대항강이랑 합쳐지는 데 거기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고기가 많이 사니까 기러기 떼가 또 많이 와요. 황새도 오고. 그래서 중간에 압록이라고 이름이 바졌다고 그래요.

근데 압록은 군사적으로 통일신라 때부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통일신라 때도 그러고 옛날에 삼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우리 경찰들이 포위해서 공격해가지고 인민군들 남하를 일주일 동안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어요. 근게 경찰전에서 가장 빛나는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6·25 전사

에서도 북한 정규군이 남하하는 데 한 일주일 동안 지연시키는 데 가장 공을 세운 데가 압록이에요.

우리 곡성 경찰들의 힘이 컸죠. 그래서 곡성 군수님이 압록에 승전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서 지금 승전비가 세워졌습니다만은…….

압록은 풍치도 좋고 고기가 많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전략요충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위에 죽곡으로 올라가면 옛날 다리가 있어요. 그 옛날 다리가 전쟁했던 자리고, 지금 다리는 나중에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 다리는 이렇게 휘어져 있죠. 휘어진 다리는 우리나라에 2개입니다. 그 외국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데, 그 시멘트 다리는 지금 우리나라 6·25 전사에 빛나는 공을 세운 장소라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해서라도 헐어진 대로 그냥 뒀야죠.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곡성, 정갑선굴, 옥과 이야기

곡성이라는 이름은 옛날에는 그 옥내라고 있어요. 일제시대에 옥내, 별칭을 옥천이라고 했어요.

통일신라 때부터 곡성이란 이름을 골짜기 곡자로 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글자가 곡식 곡_곡자나 골 곡_골자나 조선 영조 때까지는 같이 쓰였습니다. 똑같은 뜻으로.

그러나 한때는 곡성이 이렇게 그 골짜기 곡자를 쓰니까 품위가 안 난다고 해서 곡식 곡자로 쓰자. 그래서 ‘곡성 밥’이라는 그 현판도 중간에까지 전해 왔죠. 그런데 또 나라에서 곡식이 많이 나는 줄 알고 세금을 많이 붙여서 원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 계속 곡식 곡자를 써서는 안 되고 골 곡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골 곡자 곡성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 오죠.

그러나 실제로 연혁상으로 따지면 곡식 곡자는 안 쓰고 골 곡자로 썼죠. 옥내, 옥천 그러다가 곡성으로 바뀌었죠.

곡성은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이라고 해요. 전에 도선선사가, “곡성은 큰일이 있을 때에 동악산이 울고 봉이 알을 품는 그런 명당이다. 만약에 봉이 날아가 버리면 곡성에 폐가 되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곡성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흐르는 내를 고양이내라고 했어요. 봉황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내를 줄여서 괴내, 괴내를 한문으로 쓴 게 고양이 묘_묘자 내 천_천자를 써서 묘천. 앞에 마을도 묘천리, 고양이내 마을이고 앞에 흐르는 냇물 이름을 고양이내, 묘천이라 했고, 그리고 또 산 뒤로 넘어가는 재 이름을 땅 기운이 광주 쪽으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재 이름을 고양이재, 고양이재를 줄여서 괴티재라고 하고 한문으로 말하자면 묘치_{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황은 죽실을,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해서 곡성 이름에 대 죽_죽자가 많이 들어가요. 죽곡면이라든가 하죽이라든가. 오죽나무 가지에서 논다 오동나무 오_오자가 지명에서 오곡면이나 오지리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또 봉황과 관계되어서 곡성의 봉조리라든가 서봉리라든가 이렇

게 해서 유봉이라든가 비봉이라든가 봉과 관련되는 지명이 많죠. 또 순자강이라는 강은 봉황이 좋아하는 것이 메추리입니다. 그 압록가는 강을 메추리 순자강을 따서 순자강이라고 불렀어요.

봉황이 싫어하는 것이 고양이, 좋아하는 새는 메추리. 그래서 순자강, 묘천 이런 이름이 지어지고 또 오지리, 대사리, 천마산이라고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게 천마산이라고 그런 거죠. 구례 산동으로 넘어가는 곳이 천마산입니다. 그쪽을 못 날게 하고, 또 구례 쪽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호랑이 호수의 호곡리가 있어요. 구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곡리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 곡성 270여 부락중에서 57개 부락의 지명이 이 풍수지리하고 관련이 있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삼기 괴티재에 가면 정갑선굴이 지금도 있어요.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1m 되고, 그 안에 또 이층으로 된 굴이 있죠.

그런데 옛날에 그 굴에 정갑선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체격이 크고 아주 장대했다는군요. 그 굴에 살면서 장사꾼들이 괴티재를 넘어갈 때 털고, 심지어는 뒤 시집오거나 가는 신부들이 근처에 갔을 때 강제로 겁탈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갑선이라는 사람이 그

도둑으로서 굴에 있었다고 현재까지도 전해져 옵니다.

옛날에는 그 굴에다 연기를 피우면 저 경주 불국사에서 연기가 나오고 서울 남산에서도 연기가 난다는 전설이 있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그리고 전에는 옥과에 청강호가 있었지요. 옥과현 소재지, 지금 그 옥과면 전남과학대학교 앞에 있던 인공호수가 청강호였어요..

누가 지었다고 확실히 안 해 봤다고 조선시대 때 이혁개 현감이 만든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요. 이혁개 현감이 눈주산이라는 기생과 함께 밤에 뱃놀이를 하면서 시를 읊었다는 얘기도 전해 오고요.

또 고려 말 유명한 장군인 강감찬 장군이 그 호수를 지나가는데 개구리가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부적을 써서 던졌더니 개구리가 울음을 그쳤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 오고.

근데 1960년대에 그것을 개인이 불하받아가지고 매립해 버려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국유지를 정 모씨가 사서 매립해서 개인 소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현판만 그 노인정 앞에 있고 불과 한 10여 평 남아 있습니다. 표석비하고 10여 평이 있죠.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단군전

우리나라 단군전 얘기를 좀 하자면—

이북에는 묘향산에 단군신단이 있고, 경기도 마니산에 첨성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천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북쪽에는 평양에 묘향산, 서쪽에는 강화도에 마니산, 그리고 남쪽에는 곡성 동악산이 호남의 명산인데 거기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군지에 삼인동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확실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삼인동에 있었다는 것은 군지에 나오죠.

근데 1909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곡성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오신 백당 신태운 선생님이,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니까 우리나라를 되찾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겠다. 뭉치려면 중심사상인 단군을 단군전에 모셔야겠다, 해서 지방 유지들과 또 관계 일부 인사들과 합심해서 1914년에 삼인동에 단군전을 설단한 거죠.

원래는 조선시대에 이미 단군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없게 되고, 1914년에 우리나라 역사를 계승하고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단군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삼인동에다가 뜻 있는 선비들과 함께 단군묘를 설단한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하고 3월 15일 어천절 때에 왜경, 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산속이다 보니까 사람들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 뒤 1931년에 현재 백당기념관이 있는 곳에 초가집을 짓고 거기다가 단군 신의를 모시고 그렇게 일 년에 두 차례씩 단군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개천절하고 어천절.

그러다가 8·15해방을 맞이해서 1952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군 성전 명전각. 그 명전각을 짓고 거기에 단군 영정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정은 1952년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자 명전각 주변 정리를 하다가 1968년에 좀 확장을 했어요. 모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재 그 백당기념관 건물을 약간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도 세우고, 단군 보전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약 500여 명의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군전을 설단했는데, 이 단군전이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등

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북에는 묘향산이
고, 남한에는 곡성에 있는 단군전이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
니다.

지금 내가 단군전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앞에 여섯 분이 단군전
보존에— 예전에 보존계라는 계가 출발했어요. 단군전을 수호하는
단체가 보존계.

그러다가 단군전 보존계로 개명을 해가지고 오다가 2004년에 제
가 사단법인 국조단군 곡성송모회, 사단법인 국조단군 곡성송모회
로 법인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이제 그런 법인으로서 그 국조 단군 곡성송
모회에 의해서 지금 단군전을 수호하고 단군전을 관리하고 또 이렇
게 모든 제향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개국하신 단군 할아버지를 잘 모셔야 돼요. 지
금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을 모시고 영국에는 여왕 계시고 태국에도
왕이 있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후
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르게 계승하고 나서 애국이라든가
애향운동을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조상을
섬기는, 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고 계승하기 위해서 단군전을 발
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도깨비살

섬진강에 살뿌리어살이 있는데, 살뿌리어살은 마천목 장군, 조선 조에 태종을 위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킨 마천목 장군이—

본래 마천목 장군은 장흥에서 태어나서 15살 때에 신승겸 장군 후손, 외가를 따라서 곡성 오횃면 당산리로 이사를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시니까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섬진강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 파란 색깔, 색다른 돌이 있어서 주워 왔는데 그날 밤에 도깨비들이 몰려와서,

“대감께서 가지고 온 돌이 우리 대장입니다. 그 대장 돌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나보고, 풀이나 베고 고기를 잡는 이런 평범한 사람을 보고 대감이라고 하나?”

그리고 쫓아버리니까 도깨비들이,

“어르신은 장차 큰 대감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마천목 장군이 대감을 연했다는 말이 있지요.

또 도깨비들이,

“어르신이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다 드리는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깃살을, 어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녹두죽을 좀 끓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집이 가난해서 녹두죽을 많이 못 끓여 줬더니 도깨비들이 도깨비살을 쏘다가 한 95프로를 쏘고 5프로를 남겨놓고 날이 밝아오니까 가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녹두죽을 많이 줬으면 100프로 썩어서 줄 것인데 녹두죽을 적게 주니까 95프로 정도만 썩다는 거예요. 어살을 썩어서 고기를 쉽게 잡아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해라, 그래서 했다는 도깨비살이라는 말이 전해 오죠.

지금도 섬진강에 있어요.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동악산 신선바위

신선바위는 기우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위치는 곡성군 동악산에 있는데 이 바위는 동악산 약 500m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크기가 짐채만 하고 평평한 바위여서 옛날에는 하늘나라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놀던 자리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죠.

신선바위 밑에 신의대가 있는데, 신의대라는 것은 산 사이에 있는 그 산. 신내림 받은 사람이 대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비가 오겠습니까. 며칠에 오겠습니까? 3일에 오겠습니까? 2일에 오겠습니까? 물으면 내리지 아니하면 대나무가 옆으로 움직이고 비가 온다고 하면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것은……. 부인네가 오줌과 똥을 바위에 누면 하늘나라 신선들이 괘씸하다 오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비를 내렸다고 그래요. 다른 지방에서는 신에게 소원

을 빌어서 이루게 하는데 여기는 신의 노여움을 사게 만들어서 비를 오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신을 노하고 화나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 중에 아주 특징 있는 기우제지요.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말 무덤

입면 학강에 있는 말 무덤은 본래 월파^{月坡} 유팽로^{柳彭老}, 그 의병장이 금산전투에서 싸우다가 목이 잘려 전사하니까 타고 있던 말이 장군의 두상을 물고 옥과 학강리까지 뛰어와서 마당에 놓고 일주일 동안 울었대요. 일주일 동안 여물을 줘도 먹지 않고 울다가 굶어 죽으니까 그 유팽로 장군 부인과 마을사람들이 참 장하다 그래서 마을 앞에 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지정리 때문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있는 말 무덤을 사람들이 의로운 말이다 해서 '의마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 주인인 월파 유팽로의 두상을 물고 고향으로 와서 바닥에 놓고 일주일 동안 여물을 먹지 않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 가혹하고 의로운 정을 높이 칭찬하기 위해서 그 말을 물어줬던 거예요. 뭐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말의 무덤이죠.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복호폭포

그 도림사에 올라가다 보면 원효계곡이라고 있는데, 전번 이야기 한 것같이 원효동 계곡은 이제 구월리와 서계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죠. 거기에 복호폭포가 있는데, 복호폭포는 그니까 먼저 원효계곡은 그 도림사 위에 있는 계곡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원효대사가 그 복호폭포에 자주 있었어요.

없드릴 복^伏자, 호랑이 호^虎자, 복호라는 이 폭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폭포였어요. 3단 폭포로 곡성에 유명한 경관인데, 그 길이가 2미터는 돼요. 옛날에는 여름철에 농사짓고 6월 중순에나 7월 무렵에 가서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했던 노천, 그런 목욕탕이죠. 그런데 원효대사가 거기서 학문을 닦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적에 신라왕한테 글을 하사받았다고 전해 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복호폭포를 잘 몰라요. 조금씩 잊혀져 가죠!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여우내와 황새들

곡성 읍내에 영운내가 있는데, 그 영운내가 본래는 여우내였어요. 우리말 '여울'에다 '내'를 붙여서 리을 자가 내 앞에서 사라진 이름이지요. 여우내가 원래 이름인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한문을 쓸라 그러면 원래는 산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산촌이란 말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아마 음을 그냥 그대로 연음으로 쓴 것 같아요. 꽃부리 영꽃자 구름 운꽃자, 이렇게 영운으로 일본사람들이 마음대로 1910 년대에 고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우내 뒤에가 소나무가 많았어요. 소나무랑 편나무가 많았죠. 대 나무도 있고. 그래서 나 중학교 때까지도 황새가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벌목해 버리니까 황새가 없어졌지요.

옛날에 영운 위에는 이름난 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곡성의 인물이 영운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황새가 없어진 뒤에 그 인물들이 다 돌아가셔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황새가 없어진

것은 대라든가 나무를 전부 베어버렸기 때문에 새들이 살기 어려워져서죠.

황새가 많이 있어서 고개 이름을 황새들이라고 했어요. 황새바위도 있고, 황새가 살 때는 곡성에 인물이나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곡성의 지명이 황새, 봉황 다 상서로운 새들에서 유래가 됐지요!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내리

원효동

원효동은 곡성읍 서계리에, 아니 서계리와 구월리 1구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원효사라는 절을 짓고 거기 폭포수에서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신라의 조정에서 불러서 신라로 갔는데—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도지, 1925년에 발간한 도지에도 그 이설로 향가체(향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문헌이. 근데 거기서 원효대사가……. 잠깐, 그새 이름을 잊어버렸네. 신라 태종, 태종 때 그…… 요석공주!

요석공주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설총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노래가 지금 향가체로 지금 전라남도 도지에 전해 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 요석공주와 설총의 얘기가 있는데, 그 원효계곡에서 학문을 닦는 도중에 가졌다는 얘기가 전해 오죠.

그래서 지금 그 계곡 이름도 원효계곡이라 그러고, 그 앞에 서개

리로 가는 다리도 원효교라고 붙이고, 지금도 원효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립사보다 먼저 원효사가 있었는데 빈 곳이 너무 많아서 그 절터를 옮겼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함허정, 군지촌정사

함허정은 단종 때 유명한 심광형 씨의 손자 되시는 분이 건립했는데, 그것이 본래는 옥과현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옥과의 현감이 부임할 때에 환영회라든가 퇴임할 때 송별회를 거기서 했지요.

옥과의 선비들이 거기서 학문을 닦고 또 시조 읊고, 글공부도 한 곳인데— 그 건물이 조선 때 지은 그대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유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자문학의 대표적인 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냇물이 있어서 낚시질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군지촌정사는 건물 구조가 우리나라 고유의 그 전통적인 건축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굴뚝이라든가 사랑채라든가 방해서 그런 것이 전부 조선의 대표적인 가옥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민속가옥으로서 국가민속자료로 문화재 지정을 받았죠.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향교, 태안사, 신승검 장군

우리 곡성에 있는 향교는 조선조 태종 때— 그때 전국적으로 각 현마다 향교가 생겼어요. 그때, 그러니까 1401년부터 3년 사이 무렵에 곡성에 향교가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조 때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임란 때에 불타버려서 선조 때 다시 건물을 지은 것이지, 맨 처음 생긴 것은 전국적으로 각 군마다 태종 때, 그러니까 1401년부터 3년 사이에 지었어요. 그래서 곡성은 대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동재, 서재가 있고 명륜당이 있습니다. 현재 전사청은 없고요. 중간에 없어지고요.

그래서 향교로서의 건축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지금도 보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맡았던 기능을 지금은 현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연수, 그리고 방학 때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 향교 회원들이 백 명 이상이 되는데 회원들이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만나서 선현들을 모시는 제향도 하고 자체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초하루하고 보름날, 초하루하고 보름날에 오시면 9시부터 문을 열어서 10시에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일 년에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석전대제라고 해서 제사를 모십니다. 석전대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래서 일 년에 두 번 석전대제를 모시죠.

향교는 현재 곡성을 교촌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자리가 완전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자리이고, 지금 그 주변 환경도 숲이 우거져서 좋습니다. 다만 읍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진 것이 아쉽죠. 옛날에는 한 문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용한 명당자리에다가 향교를 지어서 공부했죠. 요새는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짓지마는 그때는 주변이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에 향교를 지어서 향교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일반민들이 수양하고 공부하고……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을 겸수하는 곳이죠.

곡성에는 또 마을마다 서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승겸 장군을 모시는 덕양서원이에요. 덕양서원은 우리나라 숙종 때 나라에서 내린 사액서원입니다.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지정해주는 서원을 말해요. 그래서 남쪽 장성에 가면 필암서원, 하서 김인

후를 모시는 필암서원이라고 하면 이쪽 북쪽에는 신승겸 장군을 모신 덕양서원이 사액서원으로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향교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서원은 개인, 일반 개인이 하는 사설 교육기관, 사설 고등교육기관이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서원 출신들이 과거에 얼추 진출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서 학풍이 온 데입니다.

덕양서원에는 현재 신승겸 장군의 신위가 있고, 신승겸 장군을 칭찬하는 비가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세운 비인데, 이 비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으나 그 우리 신익희 선생님의 친필 현판이 있고, 일 년에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제사를 크게 모시면서 그 신승겸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죠.

신승겸 장군은 곡성 목사동 구룡리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마을이 구룡리인데, 구룡리는 마을 뒷산이 아홉 용이 꿈틀거리는 그런 명당이에요. 그래서 용 아홉 마리가 꿈틀거린다고 해서 신승겸 장군은 큰 장군이나 왕이 될 그런 인물이었죠.

저기서 태어나서 그 앞에 용탕이라는 데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신유봉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동에서 신유봉까지 말을 타고 달렸

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궁예 밑에 있다가 뜻이 맞지 아니하여서 왕건을 모시고 가장 앞장서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이 컸죠.

그러나 후백제 견훤과 대구 팔공산에서 전투하다가 군사 부족으로 왕건과 신승겸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 신승겸 장군이 후일을 약속하고 왕건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왕을 대신해서 왕의 갑옷투구를 입고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죠.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데 일등공신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신, 예, 대표적인 충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승겸 장군이 아니었다면 고려도 건국이 안 되고, 삼국통일도 이룰 수 없었죠. 왕건을 피신시키고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 훌륭한 장군이었죠. 신승겸 장군은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신이에요.

신승겸 장군이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태어난 곳은 곡성 목사동 구룡리고, 전사한 곳은 대구 팔공산이고 거기에 표충사가 있죠. 그리고 묘지는 지금 강원도 춘천 서면에 있습니다. 그 묘지는 본래 왕건이 자기가 죽으면 쓸 생각이었는데 자기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장군을 모

셨죠.

근데 그 당시에 전투하다가 목이 달아나고 없어서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묘에다 묻었는데, 또 도굴꾼들이 금으로 만든 두상을 훔칠까 싶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묘를 세 개 만들어서 지금도 그묘 세 개가 전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원도기념물로 되어 있죠. 표충사는 대구기념물 제1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승겸 장군이 태어난 곳은 곡성이고 전사한 곳은 대구 팔공산. 그리고 묘지는 강원도 춘천. 그래서 이 세 군데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사동에 가면 거기 용마 설화가 있어요. 신승겸 장군이 화살을 쏘 놓고 말을 달려와서 그 표적 있는 데를 보니까 화살이 아직 왔어요. 그런데 장군은 말이 늦게 왔다고 화를 내며 말의 목을 쳤는데 뒤에 화살이 와서 꽂혔어요. 그니까 화살보다 용마가 더 빨리 달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또 태안사 뒤에 장군단이 있는데, 그 장군단은 신승겸 장군이 전사해서 목이 달아나니까 말이 장군의 목을, 머리를, 두상을 들고 와서 태안사 주위에다가 놓고 울었대요. 말 울음소리에 태안사 스님들이 가서 보니까 말이 장군의 두상을 물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고 울

고 있더라죠.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만들고 장군단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만약에 알려지면 나라에서 그 주변의 태안사 땅이라든가 뭐 그런 사유지를 소위 국가에서 국유지로 지정할까 봐서, 그러니까 태안사 땅이나 재산을 빼앗길까 싶어서 비밀로 제사를 지내오다가 해방 이후에 알려져서 장군단에다가 그렇게 조성하고 신씨 문중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죠.

태안사는 통일신라시대 때의 대표적인 사찰로, 구산선문의 하나입니다. 구산선문. 그래서 속칭 동리산파라 그래요.

구산선문이 요 근처에는 화순 쌍룡사가 있고 장흥에 보림사가 있고 남원에 실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곡성 태안사는 고려를 개국하는 데 가장 공헌을 많이 했고, 한때 왕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혜철스님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오셔서 절터를 아주 명당 자리에 지었고,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제일인자인 유명한 도선선사가 혜철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도선선사는 나중에 광양 옥룡사로 갔습니다만, 혜철스님 밑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밑바탕, 기초를 닦으신 분이예요.

지금 혜철스님의 뼈를 묻어놓은 '혜철선사조륜청정탑'이라고 부도가 있습니다. 그게 본래는 국보였어요. 그런데 1957년에 국보로

되었다가 1961년에 보물로 격하됐어요. 그 제자인 광자선사비와 탑이 다 국보였는데 같이 보물로 격하됐지요.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같은 시대의 부도로 국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구례 화엄사에도 있고 쌍봉사에도 있고 철갑선사 부도가 있고 칠성사에도 부도가 있고. 그런데 혜철선사 부도탑 높이가 3.1m 정도 돼요.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형미는 아주 뛰어나나 좀 그랬기 때문에 보물로 격하되지 않았나 여겨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관리도 좀 소홀히 했고. 그래서 그런 혜철선사탑, 광자선사탑, 비가 국보에서 보물로 격하된 것이 좀 아쉽죠.

그 외에도 바라가 있어요. 바라를 추적해 보니 효령대군이 그 절에다 시주한 것이라고 그래요. 단종 때 만든 것어요.

효령대군은 벼슬에 별 뜻이 없어서 자기보다도 영리한 동생인 세종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곡성 죽곡 동계리에 몇 년 동안 사실 때 태안사에 바라를 시주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보물로 돼 있어요.

내가 학생들하고 처음에 다닐 때는 아무런 지각이 없었는데, 복원 기사가 태안사로 왔을 때 제가 권의를 했어요. 이것은 나라의 보물

급인데 아무런 지정이 없어서 잊혀질 수가 있으니까 도지정이라도 해주십시오. 건의를 했더니 바로 그것이 도지정으로 올라갔다가 그해에 보물로 되어서 저로서는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자부하고 그러죠.

바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바라예요. 지름이 약 1m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법당에 있는 동종은 그 머리 부분이 아주 기교가 특이해서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안사에는 지금 보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학근(남, 81세) / 곡성읍 읍내리

마천목 할아버지

마천목 장군이 우리 조상이여.

근디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 마천목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부렸 다네.

마천목 할아버지가 시켜서 독고 만들고 어살도 만들고, 저기 섬진 강가 어살 말이여.

마홍숙(남, 84세) / 석곡면 방주리

원님의 문안인사

우리 5대 할아버지가 그전 말로는 나라에서 원이거든. 지방 말로는 군수지. 원도, 원님도 지방이야 차가 있어 고속도로 있제, 여기가 그전 말만타고 다닐 때는 별로 안 넓었거든.

원님이 요리 곡성으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리고 가야제. 우리 할아버지를 문안을 안 드리고 그냥 가면은, “으으으 요 것들.” 이래뵈면 그때부터 당장 배가 아프고, 몸살하고 그런데. 근께 디다보고 가야지.

여 사당에 문안인사 안 드리고 가면 원님 할아버지도 배 아파.

마홍숙(남, 84세) / 석곡면 방주리

점동네

예전에 저기 승범에서 옹기랑 구웠지. 몰라. 난, 알 듯 말 듯 할 때 구웠대. 여기서는 지방은 삼구라고 한다, 옛날에 점동네라고 했거든. 지방은 삼구라고 허잖아 점동네는 버려블고.

저가 옛날에는 혼사를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 거시기 미륵굴 말고 여짜 산승굴 저기에 도자기 그런 거 있었지. 승범은 옹기를 꾸고.

점동네에 외부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겁나게 와갖고 살았어. 여그 사람 아니고 삼구는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 삼구 사람들은 그렇게 좋응께 오고, 동네 사람들은 안 좋응께 안 온가 봐. 허 허…….

승범 말고, 여짜에 세정에 가운데에 지하수로 지금 없어진 그때 예나 점동네는 없어져블고 지방에.

점동네가 어디어디나쁜 저그 여우네, 읍내리 1구, 세정, 삼구허구 승범은 기억 난디, 여그는 내가 잘 모르겠어. 나 알 듯 말 듯 할 때꺼

정 점동네란 말만 들었어. 항시 삼구라고 안 했고 점동네라 그랬어. 여우네 전이 제일 크지.

여기 세정 있잖아, 승법 옆에. 거 승법 옆에랑 여쪽에 여기 괴내로 가고 땅고개로 가고, 요리 오고 삼고개 여쪽에 술집이 두 가구가 있었어.

맞아. 거기 커브 돈 데, 땅고개에서 내려와 여기 커브 돈 데. 여쪽에 묘천 내려가고 승법 들어가고 밭에 있잖아. 여가 거시기 집이 한 가군가 두 가군가 있었을 거여. 국밥도 하고 술도 팔고 가시내장사도 했어 거기서. 거기 술집 크게 했어. 가시내들 많이 데려다놓고. 우리 국민학교 땡길 때도 있었다니께.

근디 우리 큰오빠가 그 술집에 땡겼당께. 거그 술집 가시내들한테는 갱겼어. 가시내들이 너무 잘생겼대. 나는 그냥 생겼는디, 우리 큰오빠는 너무 잘생겨갖고 가시내들이 따라땡겼디. 허허…….

우리 큰오빠가 살았으면 몇 살인가 모르겠네. 스물시 살에 일본으로 징용 끌려가서 안 나와부렀는디, 백 살 됐을라나.

보자, 우리 작은오빠가 팔십칠이고, 그 우게 언니들 둘이 있고, 거가 쥘 딸이. 제일 큰오빠게로 만약 살았다면 백 살 되겠구만. 우리 형제가 남자가 서이고, 여자가 다섯이여. 내가 팔남매 넷째딸로 넷

째. 우게 아들덜 말고.

그때 점동네에서 용기 판 사람들이 여기 사람인지 외지 사람들인지는 나도 모르제. 시방은 다 돌아가셨을 것이여. 저기 세정에도 다 돌아가시고, 시방 산 사람들은 안 했을 거구마.

옛날에 바깥에서 사고치고 도망 다닌 사람들이 점동네로 숨어들었단디, 모르제.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개로 말은 많애.

펜션자리 요쪽에 반대 거기 점동내. 무각사 있는 데 말고 왼쪽으로 올라간 데 거기가 기여. 노인네들 다 돌아가셔본디 거 가도 마찬가지로 가지일 거여. 그 뒤에 가면 거기 배밭 있고.

우리가 옛날에 가면 기와장도 있고 그랬어. 전에는 고놈을 짙어갖고 노끈에 딱 묻혀서 설 돌아오른 앉아서 그릇 닦고 그랬제. 거그 끈 자리는 알아. 기와장도 있고 그릇도 있고. 거기가 개발이 되브렸어. 완전이 묵어브렸어.

문군남(여. 79세) / 오곡면 미산리

용기

점동네는 요기 승범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제. 용기는 여기서 만들었고 저그는 승범이 아니고 점동네라고 불렸어. 지금은 아무도 안 살지만 승범하고 점동네는 길이 안 좋았어. 근데 인자 새마을사업 하고는 좋은 길로 다녔지. 그전에는 요리 인자 논땅인데, 논마지기까지 요리 빠지고, 요리 도로가 있는 디 전부 다…….

여그 용기는 순천, 그 바로 넘어서 괴목까지 가서 팔았제. 괴목역에서 내려가지고 구례시장에 가서 팔았제. 아주머니들이 저까지 걸어가고, 구례 산동이랑. 우리 인자 고려자기를 보면 얼룩무늬 있잖애, 요 주둥이가 호리병처럼 된 거. 술병이여. 장독아리는 여그서 안 만들었어. 남원 넘어가는 디 시장고개에서, 코재에서 만들고 그랬어.

요쪽에가 가마랑 집들이 있었어. 용기 조각이 겁나게 많이 나와. 우리 기억에는 요리는 가마가 없었어. 근데 여기도 보면 다 옛 묘가 있는디 조각이 겁나.

일제 때도 여그는 사람만 바뀌고 그대로 있었제. 가마는 해방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제. 육이오 전에도 있었고.

천주교 사람들이 와갖고 여그서 제사도 많이 지냈어. 근디 천주교에서 받을 팔아라고 했는디 안 팔았어. 천주교 사람들이 여그서 인자 용기 굽다가 관에 잡혀가블고, 그니까 여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용기 굽는 사람만 잡아갔대야.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용기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고 여기 코재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러지. 고게 다 인공 안에 만들어진 거지. 지금 만드는 것은 그렇게 못 만들어.

주조장에 큰 독아리 있잖애. 그게 다 여기서 나가. 아버지한테서. 지금은 인자 저 철로 만들잖애, 종들 안 해. 도가지가 구례까지도 가고 남원까지도 갔어.

아버지가 여기서 독아리를 만든 건 그 저기 삼구서 하다가 요리 이동을 했어. 일구랑 코재 거기 미산 삼구에 있었제. 인자는 가봐도 미산 삼구 어디쯤인지 몰라. 거기다가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저수지 너머는 청자 만들었던 텐디, 거기서도 항아리를 만들었제.

그리고 저리 그 저수지 저리 넘어가는 데도 있어. 거기 넘어서 삼구마을. 분청사기 나온 디.

여기 보든 이저하고 이저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유약칠을 한 것이고, 이거는 안 한 것이고. 이걸 여 위에다 올려놓고 굳 거야. 안 판다니까. 뚜껑은 안 깨지고 하면 다시 써 몇 번이고. 그리고 이걸 요렇게 놓으면 인자 이렇게 돼. 여기 구멍을 뚫은 건 불 들어갈려고 한 것 같으니.

독아리 만들 때 무늬 넣잖아. 우리 아버지는 물고기는 안 그렸어. 학이 날아간다는 식으로 한 거여. 학이 날아가는 거 그려놔어.

그 당시 물은 저기 앞에 그리 가면 샘이 한 사십 점 있어. 물이 겁나게 좋았제. 물이 좋은게 부락사람들이 물을 한껏 먹고 소금을 가져다가 붓어 주고 그랬어. 물이 싱거운게. 그니까 물을 길어놓고.

이 안에가 삼거리가 있고 저기 단풍나무 있는 디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가 큰 마을이고 저그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소리라고 했어. 삼십오 호 정도가 있었어.

독아리 만든 디는 여기 말고 동막에가 여러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여기는 조그만 거 만들어서 팔고, 저기는 작은 가마가 하나 있고, 일반 하나짜리 가마가 저기 있었어 묘지에.

박남근(남 80세) / 오곡면 승범리

산 따라 물 따라



늑대와 싸운 이야기

우리 요기서 사는데…… 사랑방에 한두 시경에 친구들 세넷이 올라온디, 뒤에 머가 와서 보니까 늑대더라. 그래갖고 집 앞에서 늑대와 싸움을 했는갑서. 인자 집에 와서 본계로 눈탱이고 여그저그가 다 찢어져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랑게.

인자 막 그때는 그 뭐여, 저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짐승이 늘어가지고 돼지를 한두 마리씩 가져가블고 그러잖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 어느 곳이든지. 노인 양반들이 그걸 잘 알아.

박노성(남, 70세) / 옥곡면 옥곡리

똥똥거리 공동묘지 도깨비

저기 정수장 있는데 거기, 양수장 그 우계 오르막길을 똥똥거리라 하는데, 거기 도깨비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흘려서 주먹으로 비석을 뚜드리고 또 발로, 발로 차붙고 그랬다~ 비석이 흔들릴 정도로 뚜드렸어야.

거기가 옛날에 사람들 그— 인자 거기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도깨비 귀신 그런 건 있는데, 거기서 맨날 하룻밤 내 도깨비 귀신하고 씨름하고 막 비석이 흔들릴 정도로 발로 차붙고 그렇게 흘리고 막 그런대. 인제는 길이 반듯이 나버렸지만.

거기를 왜 똥똥거리라 그냐면 거가 옛날부터 자갈밭이어갖고 오르막길이어. 거글 올라카는 디 힘들어서 똥똥거리라고 그리 부른 거 같아.

근데 그 똥똥거리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많이들 흘렸어. 귀신이 나온다— 그랬거든. 도깨비도 있지.

거기가 우석재 마을인데, 거가 원래 당산나무가 하나 있었어. 당산나무가 있는데, 옛날에는 길이 지금 우리 축사 앞으로 그 철근있는데 무창리 그 논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어.

거기에 우리 아버지 묘가 있었는데, 옛날에 거그 그 첫 번째 있던 묘에 비석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비석이 없어져버렸지만. 누구 비석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하룻밤 내 도깨비하고 씨름한다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 비석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비석을 발로 차붙고 주먹으로 치고 그랬어야.

박노성(남, 70세) / 옥과면 옥과리

운봉 귀신 이야기

아, 남원이면은 저— 그 뭐여, 그 운봉이라고 있어, 운봉.

우리 고향이 남원 운봉이거든? 그러면 인자 운봉 거기를 가면, 그 운봉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냐 하면은 그 저기 저 순창…….

그때 우리 부락에서 속살라고 인자 새벽 네 시에 인나가지고 저녁 내 아주 거시기 만땅 뚱여놓은 소를 인자 타지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인자 촌사람도 소를 팔면 돈을 한주먹 쥐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걸 딱 찢었어.

짜매가지고 인자 온디, 인자 즐거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디 비가 사르르사르르 오더라 이거여.

근디 누가 꼭 뒤에 따라오는 것 같더라. 근계 뒤를 쳐다보면 없어져블고, 또 뒤를 돌아보면 없어져블고 근디, 한참 더 간계로 그앞에 어떤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싹 풀고— 어디 갔다 오시냐고 딱 그랬는갑서.

근계 그 여자가 인자 그 남자를 까딱까딱해가지고 점점 이민디 남자가 인자 술을 묵은디, 무거운 짐이 인자 그 여자를 실랑실랑 꼬셨는갑서. 그래가지고 인자 새벽에 인나본계로 더 딱딱했다— 이거여.

돈을 줄라고 본계 어? 그 돈을 인자 자기도 어찌 푼지도 몰랐는디, 왜 그 도로 가에 밋밋한 말뚝에 글씨 적은 거 있잖아. 그거다 돈을 놓고 절을 얼마나 해버렸는가, 요 마빡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줄줄 줄 나더라네. 즈그는 인자 와브러땅계 이제. 그래가지고 와서 인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근데. 그 사람 그러고 혼나버린계로 얼마 살도 못하고 죽드만.

박노성(남. 70세) / 옥과면 옥과리

모기

원동리에는 머구가 없다네.
모기, 모기 말여.
옛날에 강감찬 장군이 여그 와서 잤대.
원동에 와서 자면서 뭐가 막 달라들어쌍게,
“어라 이것들이 뭐이냐.”
하고 부채로 확 부친 것이 모기가 놀래갓꼬 다 도망가부렀대.

박영례(여. 65세) / 삼기면 원동리

원동 도대문

원동 도대문이 없어진 거는 한 삼십 년도 넘어 거가. 내가 이 옆에 서 쪽 살았응께. 내가 애기 때부터 결혼하고서도 살았거든.
마을에 문이 여그 있고, 저-그 이구에 있고 두 개 있었는데, 일곱 개있었다단다고? 나는 여기서 산 사람인디도 정확하게 모르졌는디?
모르겠어. 나 생기기 전에는 일곱 개였을지 몰라도 나 나고는 두 개뿐이었어.
어릴 때 봤는디, 딱 그 초가집 저런 식으로 해놓고 대문 달아갓고 그 옆에다 담을 세웠제.
문에 문지기는 없었고, 문 잠그도 안 허고 그대로 나뒀어.

박용자(여. 73세) / 삼기면 원동리

도깨비 살과 도깨비 죽

요거는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여.

들은 이야긴데, 섬진강에 있는 그 도깨비 살을 도깨비한테 말해서 막을래고 하는데, 도깨비들이 그 살을 이어 만드는 도중에 그 도깨비들이 즐겨 먹는 죽을 쫓다 쫓는데 도깨비 하나한테 죽을 안쫓어.

그래서 도깨비 하나가 안 먹었다 해가지고 살을 다 막아야 하는데, 그 도깨비가 살 한쪽을 터 부렸다는 전설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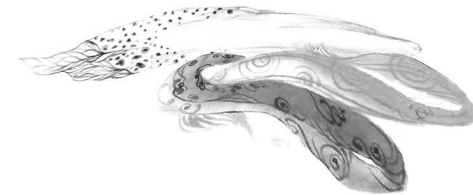
근께 그 살을 막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 효자가 막았다대. 거기서 고기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 그 살을 막았는디, 막다가 그 도깨비들이 먹는 죽을 그 도깨비 하나가 안 묵었다고 해서 물을 한 쪽을 터 부렸다는 전설이지.

그 도깨비 살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구례 쪽으로……. 여기서 섬진강을 따라 내려가면 살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살이 있는디, 다 막아졌는디, 이쪽 이쪽 한쪽만 터져 있어요. 그 나무도 지금 보여. 나

무, 그 강을 막을 때 물속에 있던 나무가 지금도 있어. 살도 지금 그대로 있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얘가지. 듣기만 했고 그 살을 보고 느낀 점밖에 없지. 지금도 살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가 봐.

박일량(남. 75세) / 오곡면 오지리



말골 불빛이야기

현실로 살았던 사람 이야긴데…….

옛날에 말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 거기 큰 봉이라는 막갈
끄막이라는 깔끄막이 있고 막갈끄막에서 보면 또 큰 봉이라는 봉이
있어. 큰 봉 작은 봉이 있어. 그럼 이제 거기 그 말골에서 사는 사람
이…… 말골에서 사는 사람이 숲을 구워가지고 곡성시장에 와서 팔
고 가면은 앞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그 깔끄막 문당에 올라가면 그
깔끄막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다가 그 깔끄막에 사람이 도착
하면 그 불빛이 또 그다음 깔끄막까지 가 버려. 그러면 인자 또 다음
깔끄막까지 가면 또 그다음 깔끄막까지 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깔
끄막을 다 올라가는 거여. 그래서 그 마지막 깔끄막까지 다 올라가
버리면 그 불이 인자 자기 집 앞에 가서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전설
이 있어.

숲을 구워가지고 숲 팔러 오는 거야. 곡성시장으로. 곡성시장에

와서 숲을 팔아가지고, 숲을 팔면 인자 뵈든지 조금 사가지고 갈
것 아녀.

사가지고 가면 거기 깔끄막이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요 깔끄막을
가면 불이 그 깔끄막으로 가 버려. 또 그 깔끄막을 올라가면 불이 요
깔끄막으로 가 버려. 그러면 자꾸 따라 올라가다가 인자 문당에 다
올라가 버리면 내려가야 할 것 아니야. 내려가면 또 그 불이 그 밑에
자기 집 앞에 가서 깜빡거리는 거여.

도깨비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호랑이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게 불이 무슨 불인지는 모르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
오고 있어. 그 어르신은 인자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살아 있는데 우
리 동네로 이사를 와 버렸어 이제, 말골서 살다가. 인자 형편이 나아
지니까 숲도 안 굶고 하니께 와 버린 거지.

박일량(남. 75세) / 오곡면 오지리

박정상 이야기

나는 죽동의 방죽골에 사는 박정상, 시인 화가 박정상이여.

곡성 죽동리 151번지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주먹만 했을 때에 동네 어르신들이 글드라고.

“야—느그 아버지가 저 호랭이 타고 다녔다.”

근께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뭘 말인지 몰랐지. 근디, 인자 그것이 어슴푸레 기억이 남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 아버지가 호랭이 타고 다녔단디, 그것이 뭘 말이어?”

딱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깜짝 놀라더라고.

아버지는 절대 호랭이를 호랑이라 안 해. 내가 아버지 호랭이 타고 다녔어? 물은께 깜짝 놀라면서 “산신령!” 딱 글드라고. 산신령이라고.

근디, 예, 산신령이라고 한게—

저번에 티비에서 <대호>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거 봤는가 모르겠네. 그 최민식 나오는 영화. 그 영화를 봤다면 이해가 갈 것이여.

근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호랭이가 육십 몇 년도에 없어졌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근디 내가 팔십년대까지는 우리 동네에서—우리 동네에 비가 많이 오고 글면, 우리 동네 거 솔무랭이 쪽에 팽나무가 있어요. 민식이네 집 앞에. 그 솔문에 그 지금으로 하든—마늘장사하는 그거이 집을 지었더라고. 옛날에는 팽나무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동네사람들이 그러. 그때가 팔십년대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호랭이가 정식으로 육십 몇 년, 육십칠, 팔년도 그 이후로 조선반도에서 없어졌다고 말을 한다, 한 칠십팔, 구년 때만 해도 동네 보덕이 아버지라고 있어. 우리 동네에 저 당산나무 북쪽골이 그 보덕이 아버지네 산이여. 거기다가 그 수박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보덕이 아버지가 풀을 베러 요로코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호랭이가 황소만 한 놈이 있어가지고 도망 왔단 소리가 있었제.

가만있어 봐, 또…… 79년 80년 그때 갑자기 동네에 호랭이가 왔다, 산신령이 왔다 갔다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돈 거여. 지금사람들은 다 모를 것이네.

동네에 똥개들이 맨날 있잖아. 동네 똥개들이 낫선 사람들 오면

왈왈왈왈 짓는데 호랑이가 내려오면 동네 똥개들이 짓지를 못해브리. 가만히 있는다는 거여.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똥개들이 조용해 들고 그것을 솔무랭이에서 동식이네 집 앞에 그 다릿거리 있잖아.

솔무랭이 저기 저 우리 죽동에서 삼강원 저쪽 나가는 데! 근게 죽동에서 삼강원 나가는 데 있지? 죽동에서 삼강원 쪽으로 저쪽으로 나가면 신월리 쪽을 가쁜 만나는 도로 있지? 그 수채형님 집이 있는 거그를 솔무랭이라고 그래. 솔무랭이. 그니까 그 솔무랭이 말고, 거기에서 쪽 들어오면 옛날에 이발소자리. 이발소자리가 옛날에 농협창고가 있었어. 그 옆에가 동식이네 집이었고, 그 바로 옆에 다리 있잖아.

동네사람들이 어찌가 거기 호랑이가 들어왔네. 저가 호랑이 발자국이 찍혔다는 거여. 그러면 동네 개들이, 견공들이 짓지를 못한다드만. 호랭이가 내려오면은 미리 느끼고 꼬리 내리고 짓지도 못하고 그런 말이 있었고—.

내가 아버지한테 인자 고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아버지, 동네사람들이 아버지 호랑이 타고 다녔단디, 뭘 말 이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산신령이라고 그래. 근디, 동네

사람들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드셔갖고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근디 우리 아버지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6.25전에— 아마 그게 여순반란사건 그 무렵일 거야. 그때 아버지가 뭐였냐면 언제드라? 내가 인터넷 찾아본게 지방호국군이라고 있었어. 지방호국군.

근게 예비군도 아니고— 예비군은 박통 이후에 생겼던 것이고, 지방 호국군이라 해가지고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어. 인자 지리산 요쪽에서 그때 여순반란사건이 났잖아.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그 사람들을 대항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내가 알기로는 경찰 산하조직 같애. 지방호국군 이레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홍식이 아버지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아버지도 그 집에 놀러 가고 함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근게, 아까 솔무랭이 옆에가 바로 수채삼촌 집이 있어. 그 옆에 우리 동네 조그마한 산이 있잖아. 우리 동네사람들은 그걸 보고 안산이라고 그래. 안산인디, 안산 거기에서 인자 그 방공호를 파가지고 거기서 몇 명의 빨치산하고 총격전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근게 홍식이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인자 나는 그런갑

다 했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인자 전쟁 이야기를 나름대로 쪽 하는데 압록에서, 근계 그쪽으로 인자 아마 빨치산 토벌 나가다가 어찌고 해서 압록에서 아버지 혼자 떨어졌나 봐. 인자 압록 다리 못 가가지고 근계 지금 인자 곡성 쪽에서 압록 다리 못 가서 저기가 마을 있잖아. 저가 전에는 논밭이었나봐. 근디 저기 딱 갔다가 아버지가 혼자 나왔나봐.

근디 그 뒤에서 지프차가— 인자 저 빨갱이 지프차가 오더라는 거야. 인민군 지프차가. 근디, 인민군이든 6·25때가 되는데. 글잖아? 아버지가 지방호국군이었을 때는 빨치산 때인데, 아버지가 인자 나이 먹어갔고 헛갈린가 어쩐가 좀 애매하더라고.

근디 인자 들은 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인자 가들이 딱 오니까 아버지가 얼른 그냥 농민인 것처럼 눈에 얼른 들어가갔고 나라피 뽑는 것처럼 논에서 요런 폼을 갖췄다는 것이여. 근디 가들도 인자 떨한 놈이 아니었나봐. 그래서 이리 와 불러갔고 동료들 어디 있냐 물으면서 아버지 귀 옆으로 하늘에 대고 공포탄 한 두 방을 쏘브렀나봐.

우리 아버지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

셔갔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악! 하고 악을 쓰고 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근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일반인 입장에서 귀에다 대고 공포탄 두 방 쏘버리면은 귀가 끝나는 것이지. 아마 이런 절차도 거치고 그랬나봐.

암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인자 6·25전쟁 끝날 무렵에 군 입대를 해. 군입대를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해. 그러다가 인자 휴전이 돼.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전이 돼. 그래갔고 그때 아버지가 글드라고. 자기 고참들이 글드라는 거여. 느그는 참 운이 좋다. 느그는 휴전자다. 그래서 인자 아버지가 참전용사로 나오잖아.

근디 이제 우리 엄마 말 들어보면, 아버지가 뭘 이상한 책을 군대에서 구했다는 것이여. 근디 그것이 인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도둑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돼.

근디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그 책을 보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신선바위를 올라갔다는 것이여. 신선바위를 가가지고 하루는 그 책을 딱 바위 위에서 요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바람이 썩 불어가지고 그 책이 날아가브렀대. 그래서 그 책을 주으러 갔는데— 그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죽동에서 말하면은 큰 재가 있고 작은 재가

있고 그러거든? 근디 작은 재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면은—.

그 죽동 뒤로 보든 제일 높은 산이 큰 재여. 그 밑에 그것보다 낮은 산을 작은 재라 그러고, 서당골로 해서 올라가지. 우리가 나무하러 가면은 작은 재까지 가고 그러거든. 근디 그 작은 재로 해서 저가 배신제 사이란 말도 있고 글터라고. 배바우골이라는 말도 있고. 좀 헛갈려.

근디 인자 아버지가 하루는 바위 위에서 요려고 책을 보고 있는데 바람이 휩 불어가지고— 인자 여그서부터는 일반인 세계하고는 안 맞는 말이네. 바람이 휩 불어가지고 그 책을 주우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여.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그 샘물이 있고, 그 샘물 옆에 산죽이 있더라. 저 죽곡 태안사로도 그렇고, 저 형재봉 밑에 거 길상암 고런 데도 가서 보면, 옛날 도인들이 도를 닦은 데는 약간의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는 데는 산죽이 나 있어, 산죽. 대나무보다도 옛날 아이스케기 대같이 가는 거 있잖아 잉. 그런 게 있다고.

근디 그 책이 떨어진 거그에 샘물이 있더라는 것이여. 그래서 샘물을 먹고. 근디 나비 두 마리가 아버지 앞을 가거니 오거니 가거니 오거니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비를 따라갔다는 것이여. 나비를 따라가니까 그 굴 있잖아. 근께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재라고 하는데, 작은재에서 북쪽으로 약간 가서 보면은 말이 굴이지 굴이 집채만 하다니까 굴 입구가.

우리 동네 박씨는 그걸 알 것이네. 그래가지고 인자 그 굴로 들어가가지고 인제 거기서 또 서울에서 온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인자 우리아버지가 굴에서 도를 닦았다는 것이여.

인자 거그서 만난 그사람이 굴에다가 구들장을 놔주었다네. 아무 리 굴이지만은 따뜻이 불을 쪼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 막 솔나무 잎상 뜯어먹고, 생짱을 먹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들은 신선공부라 했는디, 동네사람들은 아직도— 음, 내가 봐서는 좀 그래. 어찌 됐든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근디 인자 그 후에 내가 책을 보니까 주로 불경 책이더라고. 뭐 천수경이니 반야심경이니 그런 거.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 책을 놓고 요로고 징을 쳤어. 징.

촛불 켜놓고 징을 쪼깐하게 장장장장 치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지 마라~ 그 어떤 외침이 들리더라는 거여. 그래서 아버지가 인자 움직이지 않고 징채를 들고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호랑이가—.

아버지가 말하는 호랑이하고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하고 다르네.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호랑이가 크다고 해. 티비로 봐

도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크다 그래.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호랑이라고 우리 동네사람들이 말한 그 호랑이는 최하 황소만 해. 근게 동물원에서 말하는 호랑이는 대개 인도 벵골호랑이여. 근디 아버지나 동네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보다도 더 커.

근디 인자 딱 움직이지 마라 해서 딱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무지하게 큰 호랑이가 크아아악 하면서 굴 입구로 오드라는 거여. 인자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산신령이라고 한다, 인자 아버지는 굴 안에서 징을 치다가 가만히 있는데 호랑이가 딱 입구에 오드만은 한번 뜨으옥 둘러보드래. 아버지 모습도 보고, 굴 안 모습도 보고, 딱 보드마는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굴 입구에 황소가 앉은 것처럼 탁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인자 명산 쪽으로, 저 괴내 쪽으로 그쪽으로 따악 보고 호랑이가 앉어 있드래. 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인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골짜기에서 신선을 봤다는 거여. 근디 신선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도포자락을 입고 갓을 썼고, 한 사람은 등산복을 입었다는 것이여. 등산복 근게 매칭이 안 되잖아. 근디 그때 시간상으로 해그을

음이라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시간인데, 그 사람들은 지게도 안 졌고, 두런두런 두런두런하고 산으로 올라가더래.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더래. 이 사람들 걸음걸음기— 무협지를 좀 읽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경공술이라는 거 있잖아, 경공술. 그 일일이 땅을 딛고 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쫓아 올라갔는데, 분명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여. 여기서 부터 희한하네. 이걸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빼야겠네.

암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네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적에 “느그 아버지가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 그랬는디, 내 생각에는 그 말 한 사람이 혹시 종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참에 종채형한테 전화를 해봤어.

형님, 오늘 실은 요래 조래해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 느그 아버지 호랑이 타고 다녔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 했는디, 형이 나한테 혹시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소? 어렸을 적에? 그랬더니 종채형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더라고.

종채형 말도 그렇고, 그 후에 인자 엄마하고 아버지 말을 대충 엮어서 해 볼테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굴에서 소위 쉽게 말해서 도 닦는다—
그러면서도 집에 올 때가 있었나봐. 집에 올 때가 있었는데 집에 올
때 동네사람들이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아버지는 호랑이를
탄 것이 아니고 산신령이 앞장을 섰다는 거여. 길 앞을 섰다 이거
여. 아버지 앞에 서서 내려오다— 결국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저그
죽동 서당골 방죽 옆에 공동묘지 있잖아? 고리 오거든. 그러면 인자 아
버지가 뒤에 따라오고, 산신령 호랑이가 앞장을 서고 오다가 공동묘
지까지 오면은 거기서 인자 호랑이는 되돌아간다드만.

근디, 그것을 인자 서당골 방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
여, 아버지를. 그래갖고 아버지가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 그랬다는
거여. 내가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호랑이를 타본 적이 없고
호랑이가 앞장을 섰더라고.

그리고 아버지 글면 집에는 언제 오요? 물으면은 그 굴에서 딱 요
거 우리 집 부엌에— 옛날에는 부엌마다 조왕신한테 물 떠 놓는다
고 이궁이하고 벽 옆에 물을 떠 놔. 근디 그 물종발이 보이고 그랬
다는 거여. 그러면 인자 집에 오고 그랬다드마. 아버지 말에 의하면
은…….

그러면서 인자 아버지가 나름대로 신선바위도 찾고 도림사도 찾

고 죽곡 태안사 청하스님 계실 때도 다니고, 뭐 요런대로만 다녀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인자 구례에 있을때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어. 그러니까 구
례에서 공부할 때 엄마가 얘기를 낳다 본께 집안을 안 들어오고 먼
밭치에서 봤다 글더라고. 아들이 안 나왔다고 우리 마지막 누나, 내
바로 위에 셋째누나 낳았을 때라고 하더라고.

인자 그 굴에 있다가 공부할 때 그때는 길상암이 집이 되어 있었다
드만—. 아버지 말에 의하면은. 형제봉 올라가는데 길상암이 있다고
글더라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공부하려고 그 길상암을 갔더니 법당에 불빛
이 있었다고 그래. 불빛이 있고, 그 앞에 신발이 있었다는 것이여.

그래서 계시오? 이러면서 인기척을 했다는 것이여. 근디 아무리
인기척을 해도 대꾸가 없어가지고— 인자 산중 아닌가? 대꾸가 없
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나는 인자 그것을 문학적
으로 신선이 돼가지고 올라가버렸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내가 하
는 말이고, 아버지가 그때 앞에 분명히 신발이 있는데 문을 열어보
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그 길상암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고 글더라고.

길상암에서 한 5년 있다가 인자 내려올 때, 그때 나한상— 그 불교에 나한상이라고 있어. 나한상이 있었는데, 그 나한상 몇 개를 아버지가 내려오면서 도림사 주지스님한테 가져다 줬다는 것이여. 네 갠가 몇 갠가를 가져다줬다 글드라고. 우리 어머니가 도림사 그 스님 이름을 알 텐다…….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도림사에 나한상이 있더라.

인자 아버지 말은 그래. 원효스님이 그 길상암을 짓고 거기에서 그 나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갈 때에는 인자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아버지가 갈 때는 분명히 법당에 신발도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몇 년을 공부 하시다가 내려오면서, 그 나한상— 아버지는 나한상이라 그러고 누구는 아라한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 암튼 아버지가 인자 그것을 가져다주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골짜기 그 산에다가, 밭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또 공을 들인다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고 막 죽곡 태안사도 다니고 그랬었어. 아버지 이야기는 그렇고 가만있어봐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제?

행귀다리 귀신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저 남수도 있었고, 또 곡성에 지금 살고 있는 장기은이도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그때 한 열네 명인가 열여섯 명인가 됐을 것이여. 그 래갓고 오지리를 갔다가 인자 들판으로 오는데, 오지리에서 대평리 쪽으로 오다 보면 들판이 있잖아. 우리가 그때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오지리에서 곡성읍으로 갈 형편이 아니어서 오지리에서 대평리 직선거리로 왔어. 인자 그러면은 행귀다리는 곡성읍 쪽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나 돼. 그래가지고 오지리에서 대평리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행귀다리를 딱 오니까 뿔이 다리 밑에서 척 움씩…… 척 움씩…… 막 이러는 거야.

근디 누구도 말을 안 해.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친구들도 다 알거든. 행귀다리는 귀신이 나오는 다리라는 것을. 막 머리가 쭈뼛 서드라고. 근디 막 고등학교 때 혈기왕성할 때이니까 아, 순간적으로 나도 감이 오드라고. 그래도 서로 말은 안했어. 서로 말은 안 했지만은 귀신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딱 든디, 그러면서도 인자 우리가 저 곡성에서 한창 혈기왕성할 때이니까 머랄까, 두려움이 없다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도망갔을 건데 인자 힘도 있고 그러니까 행귀다리 밑에를 딱 갔어.

가니까, 행귀다리 밑에를 가니까— 다리 밑에는 둌병식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고이잖아. 근디, 거기 보이는 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무릎은 지나고 한 허벅지 정도의 물이 둌병이 되어 있어. 근디,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혼자 씨름을 하는 거야. 거기서 딱 비척거리고 있고……. 거기서 딱 그런 모습을 보니까 순간 딱 이 사람이 귀신에 홀렸구나 알겠더라고.

나 혼자 봤다른 뺨이탈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열 몇 명에서 다 봤지. 좀 더 들어가면 증거가 아예 나오네.

근데 우리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친구들도 딱 감이 왔었다고 글드만. 곡성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행귀다리에는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중이었지. 그래갖고 인자 우리가 성냥불을 갖고 라이터를 켜면서 그 사람을 불에 비춰보니까 혼자 거기 둌병에서 딱 그러고 있더라고. 행귀다리 밑에서. 근디 옆에를 보니까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 한 대가 꼬리박아져 있더라고. 그래서 인자 우리가 감으로 왔지만은 일단 그

사람을 물속에서 끄집어냈지. 그래가지고 길 위에 딱 올라와서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이 양반이 술이 한 잔 뺏더라고. 술이 한 잔 뺏겼고 횡설수설하는데, 그 양반이 곡성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이야. 시멘트 같은 거 푸고 그래 열차가 오면은,

근게 곡성역에서 하역을 끝내고— 저 어디냐, 옛날에 곡성역에 나무로 지어진 창고가 있어. 거기에다가 하역하고 낙동원 사거리, 그 고달쪽하고 신리쪽 가는 그 사거리 있잖아. 그 술집에서— 술집이 그 돼지고기랑 같이 팔거든. 낙동원 사거리 거기서 막걸리를 좀 드시고 돼지고기를 한 두 근 떼어.

옛날에 보통 그런 말이 있었어. 밤에 돼지고기를 가지고 물을 건너지마라. 밤에 돼지고기를 가지고 물을 건너면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그랬어, 옛날 어르신들이.

근디 이 양반이 막걸리를 한잔 하시고 돼지고기를 자전거 뒤에다가 고무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기분 좋게 하고 대평리 쪽으로 가는데, 행귀다리에서 무슨 하얀 옷을 입은 그게 확 거기로 잡아채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랑 씨름을 한다, 이 말이야.

인자 그래서 우리도 딱 감이 오더라고. 이 사람이 귀신에 홀렸구나

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데려다주자 해서, 아저씨 집이 어디요? 그랬더니 거가 행귀다리 지나서 대평리 첫 번째 동네가 어딘가, 마평인가? 거기 어디라고 글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네까지 어르산을 모시고 갔어.

자전거 끌고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제사라 글더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하역작업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글드라고. 아저씨 행귀다리 저기서 귀신한테 흘렀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주고 우리가 왔지.

왔는데. 우리 친구들 부잡스런 놈들이 이진 여담이여 그 자전거 뒤에 돼지고기 묶어놓은 것을 조금 뜯어 왔더라고.... 그 기현이. 장 기현이. 여보세요? 장 기현이 그 낙동원사거리에서 빵집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자고 돼지고기를 찌어온 것을 연탄불에 소금쳐서 고기를 먹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고. 인자 자네는 약간의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나 본데 아버지 이야기는 그렇고. 행귀 다리 이야기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또 도깨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자 아버지 젊었을 때

에 우리 죽동 방죽 있잖아? 그 죽동 방죽 섬이 있잖아.

그때 얼음이 언 듯, 안 언 듯 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말로는 도깨비불이 그 섬 주변을 빙빙 돌더라는 거여 그때는 아버지가 스물 몇 살이었다고 하더라. 젊어가지고 거기다가 돌팔매질을 있는 힘껏 했다는 거야. 돌이 거기 풍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얼음이 깨지면서— 얼음이 살얼음이었나 봐. 얼음이 깨지면서 풍당하니까 그 도깨비불이 그 죽동 방죽 섬을 돌다가, 앞넷가 쪽으로 가더라 앞넷가 쪽으로— 그런 말도 있었고.

근디 그거 안가 혼불이라고? 그 혼불이 보통 사람이 죽기 전 보름 전에 나가거든.

지금은 나도 못 보는데, 어렸을 때는 분명히 봤거든. 내가 봤어 혼불을—.

우리 어렸을 때 태호 할매집— 다리 건너서 우리 집 들어가면 재용이 집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어. 거기가 태호 할머니 집이여. 그 때는 여름에 더우면 태호 할매집이고 어디고 동네사람들이 전부 다리거리로 나와서 모깃불을 피우고 그런다고.

근디 인자 나도 기억이 확실치 않으니, 갑자기 불이 둥근 달같이

꼭 솟아서 한쪽으로 날아가는 거여. 그것을 나도 봤어. 근데 아, 저게 혼불이구나. 혼불이 나가구나. 근디, 어르신들은 알더라고. 저것은 병률이 할아버지 거여, 그러더라고.

어느 근방, 예를 들어서 경찰서 근방에서 혼불이 나갔다, 그러면 경찰서 근처에 사는 어느 노인네가 죽을지 추측을 하게 된다고. 여자 혼불은 꼬리가 없다는 거여. 꼬리가 없고 남자 혼불은 꼬리가 있다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알더라고. 근데 나 이상한 것은 그때는 혼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불 나가는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여.

그 혼불이 마치 큰 햇불처럼, 보름달처럼 이게 슈욱 하고 간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대충 알아요. 저 혼불이 신발해서 나갔는디, 오발에서 나갔는디, 그런다고. 그리고 한 보름 있으면은 그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거든. 내가 알기로는 하얀 옷을 던져놓고 그런 행위가 있고 그랬었어. 우리 때는 진짜 있었어. 미신이 아니었어.

박정상(남, 55세) / 곡성읍 죽동리

번다몰 마을의 유래

내가 난 데는 여기 승법인데, 어릴 때 살았던 데는 번다몰이여. 지금 미산2구라고 하는 마을을 전에는 '번다몰'이라고 불렀어. 그 유래가 뭐냐면—

옛날부터,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그곳에 권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대.

근데 부자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권다몰'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고 하면서 그 자손들이 더 좋은 곳으로 나가고, 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 나가게 되어서 마을이 결국 사라졌는데, 이제 미산2구라는 마을이 새로 만들어졌어.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 불렀던 '권다몰'이라는 말을 '번다몰'이라는 말로 잘못 알아가지고 말을 그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권다몰'이 아닌 '번다몰 마을'이라고 불리게 됐지.

나 어렸을 때도 번다몰이라고 들었지 권다몰이라고는 몰랐거든?
이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더라고.

박철님 50세 / 오피면 승법리



뒷산 호랑이 이야기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다. 그랬는디 인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베 같은 걸 이렇게 길쌈을 하고 한 거야.

근데 할머니가 저그 산 너머 동네 가갖고 베를 매고, 인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밀로 풀 끓여서 베를 이렇게 매고 남았는데, 갖고 왔대.

인자 그놈을 갖고 산을 넘어온디 호랑이가 당 나타난 거여. 그래 갖고 그걸 요렇게 지고 온디, “할머니.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래서 베 매고 남은 풀 애기들 줄라고 갖고 온다고 헌께, “할멈. 할멈. 고놈 나 주변 안 잡아먹지.” 그랬대.

근께 딱 줬대. 조께 떼 줬대. 근께 저만치 가서 또 따라오서 “할머니.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근께 저기 거시기 메밀묵 갖고 온다고. 애기들 줄라고 헌께로 또, 그놈 주변 안 잡아먹는대서 각 던졌대. 근께 호랑이가 딱 묵었다.

그래서 인제 집이를 왔는데, 인제 집이를 와갖고 방애를 들어갔
는데, 바깥에까지 호랑이가 따라온 거여. 그 애기들 잡아 묶는다고.
또 주라고 인제 다 먹고 없다고 헛게 인제 애기들 잡아먹는다고 하
고 있는데, 그레갖고 호랑이가 무서워서 뒤편에 문을 끌르고 뒤편
에 가니까 뒤편애가 큰 샘이 있고 큰 감나무가 있었대. 그랬는데 나
무를 올라가서 딱 보니까, 호랑이가 샘을 내려다보니까 그림자가
보인 거야. 근게로 아가, “아가 느그는 어떻게 올라갔나?” 그랬대.
근게로 앞집에서 도끼 갖고, 뒷집에서 도끼 갖다 푹푹 찌고 올라왔
다고 그랬대.

근게로 호랑이도 인제 그렇게 툵툵 찍어갖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서 죽었어. 그레갖고 쭈시나무. 거 쭈시나무가 이렇게 보면 빨해. 피
같은게 묻은 것매로. 그래서 그것 보러 호랑이피라고 근데.

박판순(여, 70세) / 곡성읍 읍내리

시는 이야기

예전에 우리는 무명을 많이 입었어. 무명치마 같은 거. 무명 베 놔
갖고 입고, 또 여름에는 삼베 짜갖고 삼베옷 입고. 또 인자 설 돌아
오면 설에 저 포목집 가서 비단 떼서 빨간 노란 저고리도 입고, 빨간
치마도 입고, 고무신 신고—. 그렇게 살았제.

내가 만들어 입은 것도 있고 사서도 입었제. 감 떼서 바느질집에
다 맡겨서 입고, 어머니가 많이 해줬제. 어머니가 갈쳐줘서 배워갖
고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해주고 그랬어.

옛날에는 고구마 많이 묵고, 여름에는 감자 많이 묵고, 밀가루 국
수도 많이 먹고, 보리밥 먹고, 그렇게 살았제. 빵도 밀가루 찌서 묵
고. 옛날에는 없는 세상이라 겨울에는 고구마 많이 먹고, 여름에는
보리밥, 밀가루죽 같은 거 많이 묵고.

결혼은 중매가 들어와갖고 선봤지. 그레갖고 서로 인제 뜻이 맞
으니까 결혼을 했제.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잘 안 히고 많이 놀았어.

공부하려면 학교 갔다 와갖고 딱지 치고, 다마치기하고 그랬어. 아주 많이—. 근게 인제 작아들이 형 찾아오라고 하면 찾아오고 그랬어. 근데 인자 영감이 혼내 면은 큰아들만 혼내야 된디 서이 다 혼났어. 나랑 거시기 작은아들이랑 똑같이. 큰아들이랑 똑같이 혼났어.

박판순(여, 71세) / 곡성읍 읍내리

행귀다리 귀신

옛날에 거, 거시기 호명당약방 아들 영복이. 영복이 즈그 아버지가 여기서 약방을 하잖아. 영복이 즈그 어매가 인자 동산지에서 밥을 해갖고 항아리에다 이고 와. 옛날에는 어디 뭐 있가니? 요만 한 깡아리가 있어. 깡아리에 담아갖고 이고 오면 거기서 나타난대. 행귀다리서. 그래갖고 그 소쿠리 밥도 다 뺏겨블고도, 얹어블고도 하고 인자 그 뒤로는 막 힘을 쓰고 오면 인자 이기고 오고 그랬대. 근게 먹을 것을 하면 거 행귀다리 거기서 그러고 나온대.

근디 참말로 그 행귀다리에는 귀신 있어. 그 오가 댁도 그 소리 했어. 옛날 할매도 그 소리 하고. 항아리에다 밥을 해갖고 저녁밥을 하고 나오면 그게 나타난대. 땅금 들 때, 땅금 어둑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나. 근게 우리 아버지도 그때 가시다가 그랬단게. 아버지도 그랬어. 그래갖고 시상에 얼마 살도 못하고 돌아가셔브렀어.

딱! 행귀다리 밑으로 쑥 내려가블터래. 근게, 귀신이 앞서 가는 그

거리가 잉— 빨리도 안 가고 더디도 안 가고 꼭 그저 시름만 가더래.
아유, 옛날에.

박홍철(남, 70세) / 곡성읍 읍내리



종고산

여수는 종고산이라고 큰 산이 있어야~ 앞에, 앞에 있는데 임진왜
란 때도 그 산이 울었단다. 울었는데~ 6·25 때도 또 한 번 더 울었단
다. 더 울었는데~

변점삼(여, 79세) / 여주시 문수동

호운석 바위

전라북도 전주에 호운석이란 바위가 있다. 호운의 글자는 호랑이 호虎자 떨어질 운飄자인데 이 바위에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이신 이안사라는 이와 얽힌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

이안사가 젊었을 때였어. 마을의 두 청년과 들놀이를 가게 되었지. 맑은 공기와 멋진 경치와 함께 술과 음식을 들며 흥겹게 놀았어.

그런데 그렇게 놀던 중에 '어흥!'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진동했어. 세 사람은 그만 놀라 일어섰지. 짐체만 한 호랑이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뒤로 돌아 도망치려는 생각을 했으나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떡 버티고 있었어. 세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호랑이는 무서운 눈초리로 셋을 번갈아봤어.

그러자 한 사내가 바위틈 새로 숨자고 낮게 읊조렸지.

그러나 호랑이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내가 거절했어.

그런 중 이안사는 호랑이와 맞서 계속 눈싸움을 벌였지.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덤비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어슬렁거렸어. 이안사는 곧 호랑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걸 두 사내에게 말하자 그 두 사내는 당장 호랑이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빌었어.

“이놈 호랑아, 네놈이 원하는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안사가 소리치자 놀랍게도 호랑이는 알아들었는지 대답 같은 울음을 울었어. 이안사는 사내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머지를 위해 희생하자고 말한 뒤 각각 윗도리를 벗게 하여 자신의 것과 함께 호랑이에게 던졌어.

호랑이가 고르는 옷의 주인이 호랑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킁킁거리던 호랑이는 이안사의 옷을 물었어.

“잘 있게나. 친구들.”

그는 말을 마치고 호랑이에게 다가갔어. 그러자 호랑이는 등을 쪽 폈다. 타라는 눈치였어. 이안사는 그 등에 올라탔지. 그러자 호랑이는 마구 달렸어. 우르르 팽! 엄청난 소리에 이안사는 뒤를 돌아보았

지. 뒤에 버티고 있던 바위가 무너져버린 것이었어. 남아 있던 두 사
내는 그만 깔려버렸지. 호랑이는 이안사를 마을까지 태워다줬어. 그
바위가 이후 호운석이라고 불리게 되었단다.

변점심(여, 79세) / 곡성읍 읍내리

도구대(搗臼碓) 처사(處士)

저는 곡성읍 대평리 금예마을에 사는 일흔 살 먹은 빙신호예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종손집안인 관계로, 집에서 모시고 있는 방
제사만 해도 1년에 11번, 그러니까 평균 매달 한 번꼴이므로 선조에
대한 얘기를 접할 기회가 많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1990년 즈음에 없어진 우리 집 6칸짜리 행랑채
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부님 빙자 남자 사자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도구대 처사라는 별칭을 가지신 지관이었어요.

도구대란 절구의 공이인데, 우리 마을에서는 메라고 지금도 상용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 20여 년이 지난 후 내가
중학생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발소에 들를 때면 마을 어른
들도 도구대 처사의 손자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 당시 그 호칭이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쭙 보았더니
매를 세우거나 굴러 풍수를 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네요.
매를 옮기도록 하여 풍수를 활용한 지관이신 할아버지가 이때부터
매우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구대 처사의 입소문을 듣고 담양에서 찾아온 분이 있었
어요. 그 댁에 진사를 하신 조부님이 종종 꿈에 나타나셔서 글씨 불
을 토하시는 악몽을 자주 꾀대나요? 그런 와중에 부인은 막연한 병
이 나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꿈에 나타난 조부님 산소를 이장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유로 수소문 끝에 곡성에
오게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담양 진사 댁의 산소 이장 일을 하셨
대요. 그런데 집에 오시자마자 영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웠대요.

“산소 일을 한 뒤에 병을 얻으면 귀신 들어 죽는다.”는 옛 풍설이
있었는데, 허필 할아버지 상황이 흡사하여 할머니의 속은 타 들어갔
대요.

이러한 상태로 달포가량 자리에 누웠던 할아버지는 비몽사몽간
에 한 아낙네가 치성을 드리다가 촛불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 꿈을 깨셨나 봐요. 그리고 그 희한한 꿈에 놀란 할아버지는 곧
바로 병환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어느 날 담양에서 오시리는 기별이 왔대요.

그간 이 댁에서는 악몽은 사라졌으나 부인의 병은 더 악화되어서
얕은뱅이 신세가 되어 침을 맞고 별별 약을 다 써 봐도 차도가 없어
서 ‘이 집터가 좋지 않구나.’ 하는 고민까지 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래
요. 이런 상황에서 부인은 실의에 빠져 사랑채에서 혼자 치성을 드
리며 소일했대요. 헌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부인의 고질병이 달포 후
에야 무탈하게 되었고, ‘이제야 산소 이장이 제대로 되었구나.’ 하
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부인에게 인사를 드
리도록 한 거래요.

그런데 아뿔싸, 할아버지가 꿈에 본 그 아낙네 그 뒷모습이 꼭 맞
더라고요. ‘아 불편한 몸인데도 이 댁 부인의 치성이었구나.’ 하고 할
아버지께서 탄복하는 사유를 이 댁에 이야기를 해드렸대요. 그 댁
선비는 조상의 산소를 일찍 이장하지 못한 죄인이라 하시며 이 상황
에 예사롭지 않다는 일념으로 조상에 치성을 드릴 사당을 지을 결심
을 하였대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그 댁 선비는 해체한 사랑채 목재와 인
부, 그리고 목수까지 곡성에 보내어 우리 집에 여섯 칸짜리 행랑을
지어 주셨대요. 개축한 그 행랑채가 완공되자 이번에는 한지 한 장

에 휘호를 써 보내와 행랑채 벽장문에 붙여 두었대요.

그 행랑채가 나중에는 사당으로, 또 야학을 하는 공부방으로, 우리 친구들이 노는 복습방으로 전전해도 그 휘호가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행랑채는 휘호에 따라 도배를 여러 번 거치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본 휘호는 훼손은 없었지만 색이 바래서 붓으로 글씨만 터치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 휘호에는 번개 電 子, 숨을 은 子, 큰 덕 德 子, 용 용 龍 子 이 낙자로 내가 기억하는데 글자 전후 배열이랑 행서체라서 확실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옥으로 확장한 본채를 개축하려고 그 행랑채를 헐어 버려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빙신호(남, 71세) / 곡성읍 대평리

첩 사주를 가진 애잔한 작은할머니

오늘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로는 첩 사주를 갖고 태어난 대단한 우리 작은할머니 이야기예요.

해마다 시월상달이 되면 문중마다 시제, 그러니까 묘사를 모시는 풍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례 산동 선산인가? 거기에 시제에 오신 어느 종문의 노선비가 도구대 처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었나 봐요. 그런데 하필 할아버지가 타지에 출타하셔서 문간방에서 사나흘이나 숙식을 하면서 할아버질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동행하여 수원으로 가셨다나 봐요.

원행지인 수원에서 돌아오시려는데 그 노선비는 할아버지께 본 처가 계신 줄 알면서도 부모 없이 부양하고 있는 자기 조카딸을 첩으로 맡기며 말 한 필에 태워 보내셨대요. 우리 어머니 말씀은 사흘 썩이나 행랑채에서 숙식을 한 그 노선비가 아마도 할아버지 본처인 우리 이천 서씨 큰할머니의 인품을 염탐한 것 같다고 한번은 말씀하

대요.

그 수원 노선비는 첩 사주를 갖고 태어난 애잔한 부양 중인 질녀의 배필감으로 우리 도구대 처사 할아버지를 지목하여 인연을 맺게 해 준 것이지요. 그 수원 노선비가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를 잘 보셨으면 질녀를 맡겼을까요. 작은할머니의 애잔한 모습이 지금도 마음을 잡네요.

그런 아픔을 가진 작은할머니는 본처인 큰할머니와 담 하나 사이에 오두막집을 구입하여 사립문을 내고 친 자매처럼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인박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 작은할머니는 딸 둘만 두고 마흔 살, 40세에 세상을 마감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빙신호(남, 71세) / 곡성읍 대평리

5대장손 출생에 얽힌 예지력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인가? 5대장손인 나의 태생에 얽힌 우리 할아버지의 놀라운 예지력을 얘기할까 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돌아가신 해주 최씨 어머니는 7남매 중 고명 딸로 열다섯 살에 4대독자인 아버지와 결혼 해 스무 살에 첫딸을 출산하셨지만 사망하는 외증에 또 한 년 달 뒤에 작은할머니 수원 백씨가 돌아가셨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때부터 실의에 빠져 떠돌면서 중국 사찰까지 유람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붓짐 속에는 불상 하나, 중국 사찰에서 구입한 향로, 목탁이 전 재산이었던대요.

할아버지는 행랑채, 담양에서 지어 준 그 행랑채 벽장에 '성전'이란 단을 만들어 불상을 모셔 놓고 향을 피우고 치성을 드리며 소일하셨대요.

이 무렵에 어머니가 둘째를 가지시자 “이번에도 딸이구나. 서운히

생각지 마라. 다음이 틀림없이 아들이고, 태어나거든, 내 말을 믿거든 믿을 신자를 넣어 신호로 작명해라.” 하셨대요.

그런데 집안 대대로 아들이 귀한지라 풍수 조화를 염두에 두셨던지 며느리를 아들이 혼한 집안, 외삼촌이 여섯 명인 아들부잣집을 직접 선택하여 매파를 넣어서 맞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 예지력 또한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각고 끝에 얻은 5대종손이 바로 저이면서 독자가 아닌 삼형제, 손자를 두셨나 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운명하실 때 담양 진사댁 그 부인의 치성을 각인하신 듯 “턱을 쌓아라.” 하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 유지를 받든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단에 치성을 드렸지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품인 불상을 나는 가보로 소중히 보존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늘 우환이 끊이지 않아 순천 선암사 스님에게 넌지시 불상에 대해서 여쭙게 되었어요. 그분 말씀은, 치성을 드리지 않는 불상을 방치해 두면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버르다가 아버지 탈상 때 대구 누나가 오셔서 불상을 모셔 갔어요. 대구 모 절에 봉안하여 드렸다고 하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2대에 걸쳐 치성을 드린 불상이라 그런지

지금도 그 불상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또 왜 맡겼던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빙신호(남. 71세) / 곡성읍 대평리



뇌죽산 설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가요? 이 설화는 우리 가문의 역사가 숨쉬는 애기인데요. 그러니까 고달면 동등바위 위 옛 오대정 자리로 풍광이 뛰어난 그곳이 우리네 선산이에요.

예로부터 이곳은 선비들이 오래전 공국단을 지어 단종을 추모한 곳이라 세조 일파가 훼손시켜 산 매수 당시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유생들과 우리 할아버지가 작은 묘목을 심으신 소나무가 지금은 노송이 되어 우리 선산 묘지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선산 구이반 설화는 산소 갈 때마다 자랑스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서 깊은 설화는 옛 오대정이 소실되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아래에다가 다시 세운 고인정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곳 귀로연에서 사권 남원 유생에게 산소 한 자리만 사정하여 남의 선산인 뇌죽산에 증조모를 이장하였대요. 그리고 증조모 묘소 아래 보인정에 자주 들러 사색을 즐기시는 어느

날 깜빡 졸았는데 황소를 몰고 강을 건너시는 증조모님이 강물에 넘어져서 깜짝 놀라 눈을 떠 보니 아 저기 보인정에 새우젓 장사가 쉬고 있었대요.

점심때인지라 할아버지에게 두부와 새우젓을 주시면서 뇌죽산의 산주가 처당숙인데 가산이 기울어 매수하실 분이 있으면 연통을 넣어 달라 하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뇌죽산 남의 땅에 미리 증조모님을 모셔 뒀는데 마침 하늘이 내린 기회가 와서 증조모님이 선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곧바로 산주를 찾아가 황소 한 마리를 주고 매수를 성사시켰대요.

그 선산이 바로 이 뇌죽리 동등바위 위 뇌죽산인데, 풍수설에 의하면 황소가 짐을 지고 강을 건너는 황우도강 풍수설이 깃든 그곳이랍니다.

증조모님이 황소를 몰아다 선물하시고, 또 선산도 황소 한 마리를 주고 구입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천기가 아닌가,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선산에 상석이나 돌재단 같은 것은 쓰지 마라.” 하는 할아버지의 금기사항이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황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는 데 거기에 또 무거운 돌 같은 것을 올려 두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당부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서 깊은 오대정 옛 자리에 안착이 된 날은 청룽이를 잡았는데 우연 치고는 또 신통해요. 5대 종손인 내 음력생일과 양력 청명과 겹치는 날이 바로 할아버지를 이장하는 날이 었대요. 그리고 새 지관이 잡아 준 할아버지 하관시간은 인시인데 내좁마을 쪽에서 이른 새벽녘에 새우젓 사세요, 할 그때가 바로 하관시라고 알려 주었대요. 아파 증조모님의 선물로 우리네 선산이 되게 한 신통떡과 또 새우젓 장사와 연계된 하관시간 입지까지 정말 예사롭지 않게 그 풍수설이 느껴져요.

빙산호(남. 71세) / 곡성읍 대평리

뇌죽산과 동등바위 통설

다섯 번째 이야기로, 고달면 뇌죽산과 동등바위가 품은 통설이 잘못됐다고 늘 할아버지는 얘기하셨는데요.

오대정 옛 자리의 역사적 유래를 인근 주민도 알고 계신 분이 드물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얽힌 얘기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조선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유은(遊隱) 김계보(金季甫), 그러니까 판서도 하시고 언양군의 증손, 함평 현감이신 김계보 씨가 은거하면서 오대정, 오대정이란 자라 오_오자, 머리 위에 올릴 대_대자, 정자 정_정자 해서 오대정인데 이걸 축소하고 공국단을 만들어 단종을 추모한 곳이 바로 우리 선산이에요.

위치는 곡성 동산정 나루 건너편 고달면 뇌죽리 순자강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강이 구부러진 곳에 보이는 데에 새워져 있는 그 바위를 두들기면 동등동 소리가 난다 해서 붙여진 전설의 바위, 그것

이 동등바위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문혀진 통설을 들춰 보면 이런 듯합니다.

어원에 동등바위가 있는 곳의 명칭은 뇌연. 돌무덤 뇌궤자, 못 연 淵, 그래서 다들 '못소'라고 했다고 하고요. 동등바위가 있는 그 산 이름이 뇌죽산이래요. 근계 돌무덤 뇌궤자 대 죽궤자 뇌 산山자. 뇌죽 산이고요.

그런 속설은 뭐냐 하면 돌무더기 같은 세조의 세력들이 억압을 해도 대나무 같은 산중 나무가, 이제 단종을 사모하는 유생들은 그 걸 이겨 낸 의지로 대나무처럼 잘 자란다는 의절을 지닌, 바람을 지닌 지명이래요.

특히 거석문화가 유래된 동등바위는 큰 바위가 민중의 소망을 북소리로 알린다는 민간신앙으로 이어진 것인데 통치자, 그러니까 세조 일파에 따라 괴멸될 수도 있는 통설이 잊혀진 것은 오랜 세월 탓도 있겠지요.

이런 통설을 가지고 있는 동등바위가 그런 곳입니다. 한 시대의 세파로 뇌죽산은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소나무나 숲도 해체되어 당시 오대정 산지기, 관리인 등 후손들이 선조의, 그 자기 조상들의 묘 하나를 두고 떠난 집터에 200년, 수령 200년 된 배오동나무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 나무가 2013년부터 고사목으로 지탱하고 지금까지 그 역사 현장에서 유언만 남긴 채 홀로 서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빙신호(남. 71세) / 곡성읍 대평리

조상님의 선몽

오늘은 여섯 번째 얘기를 끝으로 특종기사 같은 실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강산이 네 번 바뀐 1969년 10월에 4대독자 아버지가 장손을 군대 입대시키고 자대배치 받기 전에 가족 상봉 기회가 전주역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고 면회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가 곡성 곱방산 할머니가 춤을 추시며 오시다가 구름에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꿈을 연이틀이나 꾸셨대요.

전주역에서 면회 당시 자대배치가 모두 강원도와 경기도인데 유독 손자 하나만 육군사관학교에 배치된 영광이 꿈과 맞아떨어졌다고 해서 조상이 도와 이뤄진 일이라고 동네에서 축하가 쏟아졌대요.

고조모님이, 그러니까 그 곱방산 할머니가 선몽을 하셨으니 그군복무 첫 휴가 때 아버지 성화에 도구대 처사 할아버지가 터를 잡아 모셨던 곳이라고 해서 곱방산 그 먼 곳에 묘소를 찾아가 참배를 하

였어요.

그리고 20년 후 세상에 이런 일이— 동등바우 선산에 가서 실화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1997년 9월 제 43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에 선정되자 아버지를 시상식에 모시고 싶어서 곡성에 들렀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아버지는 영광스런 수상 소식을 제일 먼저 조상님께 고해야 된다고 뇌죽리 뇌죽산에 성묘를 갔는데, 아 세상에 진짜 정말 특종감 기사가 있었어요.

과학전람회 주제가 화학분야 땅콩 연구로 땅콩 꼬투리 속 기체를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아 잔디뿐인 4대조 할아버지 묘소 맨 꼭대기에 땅콩 두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유령에 썬 것처럼 “조상님 덕분이구나, 조상님 덕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연 치곤 너무 영적인 조상의 돌봄이 막연히 느껴졌어요.

그다음 날 아버지와 국립중앙과학관 수상식에 참석하고 며칠 간격으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또 청와대 초청 대통령과의 기념 촬영 간담회도 마치고 또 일본 동남아 시찰까지 연거푸 행사를 모두 마친 뒤 나주에 있는 전라남도 과학교육원에서 초

중고 과학교사 300여 명 앞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 연수 당시에 소재가 땅콩인데 그것도 4대조 할아버지 묘 상봉의 잔디뿐인 장소에 왜 하필 땅콩이 어떻게 자랐으며 이걸 필시 오직 조상이 돌봐 주셔서 이 큰 영광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증표라고 소감을 말했더니 모두 기립박수를 쳐 주시면서 축하한다고 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렇듯 집안의 애경사마다 꼭 조상의 선물이, 선물로 도움을 주신 것 같고요. 내 아들 6대독자 며느리 신행길에 조상님 묘소부터 찾게 하고 그 연유도 알려 주게 되었어요.

이제는 날로 변하는 현대문명으로 선산 관리가 옛날과 달라서 먼 곳에 모시면 별초에도 문제가 있고 깊은 산에 모신 묘소는 더욱 잊어버리기가 십상이고 또 지관이신 조부님께서 길터를 잡아 모셨던 조상 묘소 곤방산, 구례 산동, 침곡, 쌍구 이런 곳에도 풍수설에 매혹된 증손이지만 결단을 내려서 순자강의 오대정 옛터로 2016년 4월에 모두 이장하여 제단과 종운, 그리고 유허비를 세우고 진입로를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마련했어요.

빙신호(남, 71세) / 곡성읍 대평리

조씨와 조탑

여 동네 죽산에 옛날에 조씨들이 들어왔다던가 글래. 그러 조씨들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우리 동네는 조씨들이 터를 잡았다더만. 나는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구만, 조씨들이 와갖고 여서 터를 잡았다고. 그래서 조씨들이 만든 조탑이 여가 있어.

인자 그 후로 여러 성받이가 여기 같이 산 거지.

심옥자(여, 76세) / 옥괴면 죽산리

하늘재 구름다리

우리부락 여그에 하늘재가 있제. 하늘재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제.

저 구름다리는— 여기 여 하천을 건너오면서 다리가 있어갖고 그래서 구름다리여. 그때는 거기 다리도 없었어. 옛날에는 그 징검다리로 명겼지.

옛날에는 징검다리 돌들을 구름이라 그랬지. 근께 구름다리여.

심옥자(여, 76세)/옥과면 죽산리

경복궁 해태에 대한 설화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 지금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북악산 아래에 경복궁을 지었는데, 그 뒤로 궁전에 불이 자주 났대요. 일부 사람들이 그 원인이 안산인 관악산이 화기가 있는 화산인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관악산에다 우물을 파고 구리로 만든 용을 그 속에 집어넣고, 한편으로는 광화문 좌우편 앞에 해태 한 쌍을 만들어 얹혀 놓았는데, 이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해태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기는 하나 중국의 각종 문헌에 그 기록이 보입니다. 그 글에 의하면, 해태는 실제의 동물이 아닌 상상의 동물로서, 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덤벼들어 뽀로 받기도 하고, 혹은 물어뜯기도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해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영물이므로 중국 고대에는 이 해태의 모양을 본떠서 법관의 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해태관이라고 해요.

조선조 때 돌로 이 해태상을 만들어서 경복궁 정문 좌우에 얹혀 놓은 것은 그 지대 좌우에 나랏일을 경영하는 육조가 있으므로 특히 그곳을 택한 것으로서, 나라일은 정직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일한다는 뜻과 또 모든 관원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뜻에서 중국의 고사를 본받아 이것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머니(51세) / 곡성읍 읍내리

사립문

아침에는 옛 냥, 저녁에는 닷 냥. 이게 뵈이나?
이게 씨립문이여. 허허허…….
아, 아침에는 문을 열잖아. 그니까 옛 냥. 글고 저녁에는 닫는다 해서 닷 냥. 뉘이나 그러믄 씨립문.
옛날엔 씨립문을 그러코 말했당게.

안김례(여, 82세) / 석곡면 월봉리

돼지머리

돼지머리 알제?

그것은 재수 있으라고 인자 집안에 모든 거시기를 저 깨끗이 잘되
라고, 인자 말하자면 돼지머리를 올려논 것이지.

돼지머리는— 돼지는 인자 집에서 결혼식, 결혼식 할 때는 돼지를
잡아. 그놈 잡아서 인자 삶아. 고기를 안주로 하지. 인자 상에도 놓
고. 또 인자 돌아가실 때도 돼지 잡고. 인자 그 큰~ 솥단지애 불 때서
삶아.

금계 옛날엔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

양순례(여. 79세) / 곡성읍 읍내리

문턱귀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여 문턱에, 문턱에 앉으면 재수가 없다 그
래. 그래서 문턱에 앉으면 안 된다, 그거여.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은 문턱이 중요해. 말하자면 그것을 깨끗이
닦아야 되야.

어, 귀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거나 한가지지. 거기
앉으면 안 된다— 그거지. 문턱에.

양순례(여. 79세) / 곡성읍 읍내리

앞 냇가 도깨비

옛날에는 앞 냇가에 저녁이면 귀신 나온다고 했어.
우리는 인자 저녁에 친구들과하고 영화 보고 동네에서 나보다 나이 한 살 더 묵은 애, 덜 묵은 애 합해가지고 뭐 영화 불라고 나가잖아. 글면 아버지가 뭐라고 혀, 늦게 들어오른 혼나. 귀신 있다고.
그때는 전깃불도 없잖아. 캄캄할 때는 무서서 함부로 못 다녀.
근데, 요 앞 냇가에도 옛날 육이오 때 반란군을 인자 이렇게 손을 뒤로 께매가지고 공무원들이 죽여서 묻었대. 육이오 때 앞 냇가에.
그래가지고 저 밤에 가믄은, 시방은 그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불이 썩졌응게 근디, 옛날에는 불이 없어서 물을 건너 땡길 때가 있었어.
그러믄 거기 들어가믄 아주 무서. 그 앞 냇가에서 봐 부러. 이제 지나가믄 뭇 소리가 딱딱딱딱 들려. 도깨비가 나와. 그럼 월매나 무섭다고. 그렇게 무서웠는디, 지금은 뭇 사람이 무섭지, 짐승이 무섭나?

양순례(여. 79세) / 곡성읍 읍내리

제삿밥

제사 지낼 때 거 인자 문을, 밥을 채려 놓고 인자 문을 닫아노면 못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논 것이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으면 인자 할아버지 제삿날은 할아버지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놔. 밥을 채려놓고, 또 인자 말하자믄 물밥을 허믄 물밥 다 상에 여그서 채려놓고.
그담에 인자 뭐냐? 인자 또 마지막 가신다고, 인자 집에 못 들어온 우리 조상 중에서 밖에 돌아가신 분이 올 때 우리 할아버지나 집에 못 들어온, 말하자믄 귀신이 있제. 말하자믄 신! 조상신! 여 못 들어오른 배깁에서 밥을 묵어. 말하자믄 물밥 고놈 묵고. 문밖에 방에 채려놓은 놈을, 다시 딱 인자 할아버지가 다 드셨응게 갖다 놔. 인제 집 우로. 그러니까 인제 집에 못 들어오신 사람 배깁에서 묵으라고 물밥을 헌디, 옛날엔 그렇게 지켰어. 지금은 안 허지만.

양순례(여. 79세) / 곡성읍 읍내리

할머니 어릴 적

우리 어릴 때는 고무줄하고, 저녁이면 모여서 놀고 그랬제.
저기 뜨개질하고 놀고. 또 뭐이나? 영화 보러 댕기고—
저, 그때는 영화관이 없어. 여 저기 남철차보라고, 여기 여 시방 빵
집 있잖어. 사거리 현대자동차 옆에 그기가 있었고, 그담에는 그 곡
성극장이라고 짓고 가끔 한 번씩 보러 다니고, 그랬지 뭐.
근디, 무슨 영환지는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라.

양순례(여, 79세) / 곡성을 읍내리

설화 보고서

우리 고장 이야기 1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29일

펴낸이 | 곽광운
엮은이 | 조준원
펴낸곳 | 곡성군, 곡성문화원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전 화 | 061) 362-0890

제작처 | 도서출판 문예바다
전 화 | 02)744-2208
메 일 | qmyes@naver.com

© 곡성문화원, 2017.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9-11-6115-028-4

* 이 책의 판권은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에 있으며 2017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발행되었습니다.

